문화여성

문화매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광명농업협동조합
광명시 범안로 1063(이안동)
☎ (02-896-3141-4)

제 1084호 2021년 7월 9일 금요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13일부터 서울·경기 학원 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 실시

고3 학생·고교 교직원은 19일부터…"2학기 차질 없는 전면등교 철저 준비"

정부가 2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원활한 대입 전형 지원을 위해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가능한 모두 포함해 백신을 조기 접종하기로 했다.

또한 학원 내 집단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주기적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함께 추진하며, 오는 13일부터는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발표하며 "이미 예고 됐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선생님들에 대한 백신접종도 당초 계획보다 보름 앞당겨 오는 13일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 고3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 백신접종

교육부는 우선 오는 19일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교 교직원 백신접종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한다.

2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원활한 대입 전형 실시 지원을 위해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가능한 모두 포함해 백신 조기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기관은 고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인가), 미인가 교육시설, 기타 각종학교, 영재학교 등이다.

백신접종 대상자는 학생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인 고교 3학년을 비롯해 휴학자 등 고등학교 3학년에 학적을 둔 모든 사람이며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졸업 예정자도 포함한다.

또한 교직원은 휴직과 파견을 포함해 학교(교육기관) 공간에서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원은 정규·기간제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등 모든 강사이며 직원은 정규직, 교무실무·조리원 등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취합한 고3 및 고교 교직원 접종 대상자 명단 분석 결과, 전체 65만 1000 명 중 97%인 63만 2000 명이 접종에 동의했는데 학생과 교직원 동의율은 각각

97.8%와 95.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별 희망 일정을 토대로 교육(지원)청과 보건소가 학교별 특성·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별 접종 일정과 예방접종센터 배정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한다.

특히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과 이상 반응 및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해 접종 전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반드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접종 일정에 따라 백신접종센터에서 학교 단위로 접종을 실시하는데, 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관내 학교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는 이상 반응 발생에 따른 대처사항을 접종 완료자에게 재공지하고 학생 출결(평가)와 교직원 복무사항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백신접종으로 학교 교육의 공백과 혼란이 없도록 백신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도 함께 안내하는데, 학교는 재량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 상황에 맞는 자율적 학사운영을 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일이 속한 주에는 고3 학생의 원격수업도 가능하다.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고, 3일째부터는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

이와 함께 학교별 평가 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백신 접종 일정을 조정한다. 접종 당일 발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 단위 접종일이 아닌 개별 접종한 학생의 일정이 평가와 겹치는 경우에는 인정점을 부여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학원 종사자 대상 백신 우선 접종 추진

교육부는 최근 원어민 강사 등을 통한 학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학원 종사자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학원방역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전국 학원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유전자증폭(PCR) 선제 검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다수 시도에서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실시하기로 이미 확정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실시하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학원 종사자 대상 백신 우선 접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 교육분야 백신접종지원단 구축·가동

교육부는 7월부터 유·초·중·고 전 교직원 및 고3·대입 수험생에 대한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교육분야 백신접종 지원단'을 운영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을 지원한다.

교육분야 백신접종 지원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4개 백신접종군에 따라 소관 실무부서로 구성하고, 시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별 실무부서를 구성하며 해당 지자체(보건소)가 참여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6월 24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했는데,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지원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 방학 중 학교운동부 방역 강화

이날 발표한 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에서는 여름방학 중 집중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가 예상되는 학교운동부와 체육중·고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집단생활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선수들은 방학 시작 전 1회, 방학 종료 후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한 감염병의 지역 간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선수들은 대회 종료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7월 중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와 체육중·고를 방문해 훈련 및 기숙사 생활과정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침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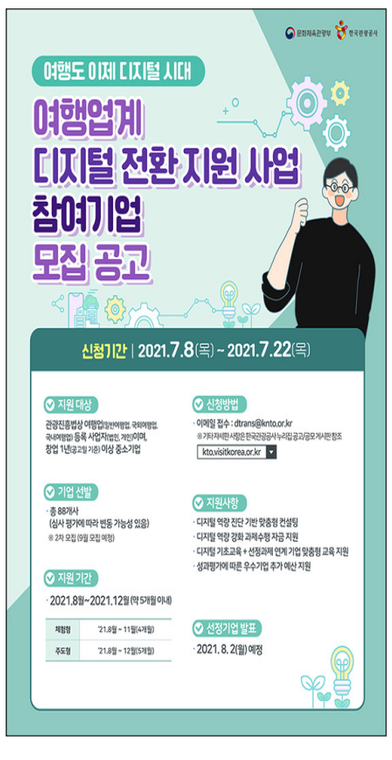
이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체육중고 27개교와 일반중고 196개교는 전수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기숙사 미운영 학교운동부 3752개교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정 차관은 "학교의 일상 회복과 전면 등교를 위한 필수조건인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방역당국, 시도교육청과 철저히 준비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감염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면등교를 차질 없이 실시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일상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디지털 전환 원하는 중소 여행사 80곳 뽑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여행사들이 신규 수익모델 발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디지털 기반시설 도입 등 디지털 전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과 상담,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여행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 중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창업 1년 이상의 기업이다.

2회 공모를 거쳐 총 200여 개 수혜 여행사를 선발하며, 이번 1차 공모에서는 80여 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차 공모는 1차 결과를 고려해 9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체험형'과 '주도형'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체험형'은 디지털 기반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간(8~11월) 동안 자금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해 디지털 전환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한다.

'주도형'은 이미 디지털 기반시설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기획사업(프로젝트)을 5개월(8~12월)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한다.

수혜 여행사는 사업 추진 적합성, 추진 역량 및 잠재력,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체험형·주도형)와 발표심사(주도형)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선발되는 여행사는 디지털 전환과제 수행을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디지털 역량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담과 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 지원받는다.

고객관리 기반 구축, 디지털 상품·콘텐츠 개발,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기반시설 도입 등 디지털 전환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을 참고해 각 여행사에서 필요한 디지털 환경개선 및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수혜 여행사와 종사자들은 디지털 분야의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교육과 수행한 과제의 활용 및 활성화, 연계 사업 창출 등을 위한 맞춤형 심화 교육도 받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유형별로 과제 수행 완료 단계에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이뤄낸 기업을 선발하고, 추가 성과급(인센티브)을 지원해 디지털 전환의 선도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관광산업 이해도가 높고 최근 3년 이내에 디지털 전환 지원 분야 프로그램과 유사한 과제를 수행해 본 적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여행사별 디지털 전환 과제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업'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국내여행사나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등록을 원하는 기업(기관)은 관광공사 누리집(kto.visitkorea.or.kr) '공고/공모'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발된 여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함께 지원한다"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요구와 성과를 반영해 사업 내용을 계속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칼럼] 어쩌란 말인가 이판사판 가볼까

2019년 12월 최초로 중국 우한 발 코로나19가 한국에 상륙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이제 지칠대로 지치거나 포기할 사람과 그냥 집에서 버티는 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어제 오늘 늘어난 확진자 숫자 앞에 망연자실한 채 푸념이 나오고 있다.

일선 생활 속의 정보를 광고로 수주받아 필요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생활정보 신문을 겸하다 보니 가장 민감한 지역경제의 체감지수를 감지할 수 밖에 없다. 인구 65만의 안산과 51만의 시흥에서 들려오는 일반 시민들의 생활정보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이 와중에 어제 오늘 확진자 증가 소식이 들리자 대체 어쩌려고 이러느냐며 우려 끝에 분노를 표했고 어차피 이래죽나 저래죽나 마찬가지라며 아예 방역을 무시하는 경우까지 생겨난다.

실제 금요일 밤, 일명 불금이면 실외 포장마차나 일반 음식점에서 불법 건축한 야외 테라스의 테이블에는 빈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위축은 심리적으로 주눅 드는 것에 불과하지만 단축은 법적 제한의 용어로 사용된다.

언론에서 아무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방역당국에서 난리를 쳐도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까지 식힐 수는 없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까지 틀어 막는다면 어디론가는 튀어나올 곳도 있어야 하는데 그 한계성은 언제 어디로든 표출되기 마련이다. 어제 오늘 급증한 확진자수는 4차 유행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대권주자들의 행보마다 물밀 듯 함께 다니는 일행들이나 민주노총 집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한 단어가 됐다. 지침과 단속 병행에 힘없는 서민들의 영업장은 사정없이 단속의 대상이 됐지만 정작 대규모로 몰리는 유흥가는 보란 듯이 영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방역 과정의 모순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필자가 이미 코로나19 초기부터 지적해온 점 중 어째 높이 50cm 플라스틱 칸막이를 못 넘고 밤 10시 이전에는 안 나타나는 바이러스가 있을까. 식당에 들어설 때는 까다로운 입장 절차가 식사 시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던가.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종잡을 수 없는 방역대책은 멀쩡한 국민들까지 쥐 잡듯 잡았다. 초창기에 대구시민들은 좀비 취급을 받았다.

2020년 4월 안타깝게 먼저 간 남동생의 장례식을 위해 찾았던 대구는 공포의 도시가 아니었다. 문상은 물론 가족 간에 조촐한 3일장을 지내고 코로나19의 비참함을 직접 체험했던 장본인으로서 국가와 국민간의 공감대가 엉성함을 느꼈다.

현실은 친절한 택시기사,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는 시민들, 시장안의 활기찬 모습에서 서울·경기가 얼마나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구시민을 대했는지 같은 국민이 맞나 싶었다.

뒤늦게 대구시장이 설명을 했지만 이미 언론의 매도는 절정을 달했고 정작 대구시민들은 자신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조차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때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주범으로 몰아 사소한 소지품까지 대서특필하거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기양양한 전투신은 종교적 대립을 겪고 있는 반대파 교인들의 대리만족에 적잖은 영향을 준거나 진배없다.

세금 탈세부터 털 수 있는 건 죄다 털었고 외신들은 탄압 그 이상으로 표현하며 노년의 총회장을 염려하는 뉴스가 연일 도배됐다. 다만 국내 언론만 침묵하며 북소리·장구소리를 울렸을 뿐이다.

이러저러한 에피소드를 다 제치고 이번 질병이 지난 후 모든 진실이 차차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방역과 종교적 보복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이는 특정인의 인기를 위해 순간적 판단에 기초한 쇼맨십 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면 몰아붙이고 다그쳤을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결과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이라면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학원, 노래방, 요양원 등 감염의 확진자는 죄인이었다.

격리해제 과정에서 감기약이 전부였던 허점도 유야무야 지나갔다. 질병관리청이 관련법을 입법예고한 지 약 4개월 만인 8일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어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바로 10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천 명 대를 기록하는 수도권 확산세는 향후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상 초월의 미래가 우려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대로 악화하면 이달 말 하루 평균 확진자가 21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방역당국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령층의 치명률, 위중증은 줄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감염으로부터 방어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뿐인가 변이의 위협이 도사리는 와중에 검출 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방역을 정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정리해보면 코로나19, 정부가 막는다고 막아질 게 아니라는 점과 단속 기준을 아무리 강화해도 들어먹지 않는 국민이 있다면 하나마나란 뜻이다.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훗날 돌이키지 못할 처신이나 공권력의 사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 지나간 일은 아무리 파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다가올 사태에 대해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역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는 길만 남았다.

아무리 잘해도 무색, 무미, 무취의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으로 때울 일도 아니고 이를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어찌하든 지나가겠지만 후회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덕암/김균식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 초화단지 꽃으로 만발

경상남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개최

경상남도의회는 7월 6일 11시 경상남도의회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상남도의회 의원들과 김경수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정재환 의정회 상임부회장, 박판도 전의장 등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참석범위를 최소화하였다.

경상남도의회는 1952년 60명의 도의원으로 초대의회를 개원하여 출범하였으나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강제해산 되었다가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제4대 의회가 개원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경남의정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식전행사에서는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남도청 소속 직원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협조로 초청된 아르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한 자리에 모여 연주와 노래로 3개 기관 상생의 하모니를 연출하였다.

본행사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들이 바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미래상을 담은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으며, 열정과 사명감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11명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인 제10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날 수상한 의원은 장규석 부의장, 이종호 부의장, 심상동 운영위원장, 황보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용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원성일 의원, 조영제 의원, 김석규 의원, 김경수 의원, 정동영 의원, 류경완 의원 총 11명이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소속의 도민 중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으며,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경남도민 제일주의 실현, 경남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선언문 낭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30년의 경상남도의회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작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타임캡슐을 제작하여 의회소식지 창간호, 1대부터 11대까지의 기록인 다큐 동영상, 민생현상을 누비며 도민과 소통한 의정활동사진 등 20점과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경상남도의회의 미래상을 적은 소망메시지를 타임캡슐 안에 넣어 봉인한 후 제막하는 세리머니가 펼쳐졌다.

김하용 의장은"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이양되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장재성의원, 市 이건희 미술관 유치 소극적 행정 질타

광주광역시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이건희 미술관 유치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 28일, 고(故)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기증한 미술품 등 2만 3천여 점의 기증품에 대해 문제인 대통령은 별도 전시관을 설치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현재 전국의 30여개의 지자체에서 치열한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며, 유족과 학연, 지연을 내세우거나 지역 균형 발전의 명분을 들며 각자의 지자체가 최적의 설치 장소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오늘 '고(故)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문화재·미술품 활용방안'을 발표한다.

장재성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이건희 미술관에 대해서는 다른 광역·기초단체가 유치 선언을 하는 모양이 안 좋아서 물밑작업만 하고 있다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내 미술관과 공연장의 50% 이상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 과천 그리고 청주에 위치해 있으며, 2018년 기준 정부지원 문화·예술 공모사업 중 전체의 72%가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될 정도로 비수도권에 대한 문화차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기증받은 2만 3천여 점에는 문화재와 미술품에는 국보급 미술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별·장르별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 비수도권의 문화주권 회복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대규모 미술관들이 지역에 배치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수많은 관광객을 흡인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문화광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문한 국내여행지 중 광주광역시 1.3%로 최하위이다. 이는 볼거리, 여행지 지명도 등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장재성 의원은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구)전남도청, 2년마다 국제미술전이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등 광주광역시가 '문화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육성하거나 유치한 시설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양한 볼거리나 지명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보다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건희 미술관이 광주광역시에 유치 될 경우 문화예술인 복지제도를 확충해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형성될 수 있으며, 수도권, 비수도권의 문화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재성 의원은 "앞으로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이 발표하게 된다"며, "광주광역시가 이번처럼 수동적인 자세로는 유치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치경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광수/기자

세종시 이춘희 시장, 이준석 대표 만나 국회법 처리 정중히 요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으며, 정진석 의원 및 원내대표단과 협의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난 4월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이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청취를 사유로 처리를 연기하면서 약속했던 상반기 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야당의 전형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춘희 시장은 "이준석 대표께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간의 진행상황, 법률자문, 예정부지 등을 모두 담은 자료를 건네 드렸다"고 말했다.

국회 이전은 박정희 정부 백지계획, 노무현 정부 신행정수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된 의제로, 지난 2004 헌재의 결정으로 논의가 중단됐으나 2012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춘희 후보가 재점화 시킨 바 있다.

이춘희 시장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부작용과 해법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준석 대표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춘희 시장은 "지난 4월 27일 국회운영소위에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안에 여당도 동의했다"며 "설계비 예산이 연내 집행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정기국회 전에 반드시 국회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아직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단 및 국회운영위원과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이춘희 시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의 흙을 담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꿈을 꽃 피워주세요'라고 적은 화분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최재은/기자

이용호 의원,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 대표발의!

시범사업 6년째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6일,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7월부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중이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의 경우 대상 품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보장해준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납부한 보험료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 또 보험금을 받더라도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피해만큼 보장받기 어렵고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재해 피해와 가격하락 위험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가 경영안정에 효과적인 보험"이라면서,

"농가에서는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를 늘 요구하지만, 정부는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개선안도 내놓치 못한 채 벌써 6년째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넘기고 있다. 가뜩이나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어진 농가의 마음을 전혀 헤아지리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막대한 보험예산 확보로 인해 상품운영이 어렵다면 오히려 시범사업을 폐지하는게 솔직하다. 그게 아니라면 전력투구를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 이상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보험상품화-본사업화 되고 재해범위 및 가입대상 품목도 확대되며 필요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 늦었지만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류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대표전화 : 1899-965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남원시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편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확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 취임 11주년 기념식수

"상전벽해라고 하지요. 용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났고, 복지부터 문화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1년도 지난 11년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5일 구 종합행정타운 광장에서 취임 11주년 기념식수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올해 취임 기념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다.

성 구청장은 이날 아침 간부 공무원 몇몇과 효창공원 의열사를 방문, 8위 선열(백범 김구 선생, 이봉창·윤봉길·백정기·안중근 의사, 이동녕·조성환·차리석 선생)에게 참배했다. 매년 빼놓지 않는 연례행사다.

성 구청장은 "72년 전 바로 오늘(1949년 7월 5일) 백범 김구 선생이 용산구 효창공원에 안장되셨다"라며 "선열들의 뜻도 잊지 않고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전에는 성 구청장, 구청 행정지원국장, 베트남 퀴논시 유학생들이 종합행정타운 광장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구는 지난 1996년 베트남 퀴논시와 우호교류를 시작, 관련 사업의 하나로 숙명여대와 함께 퀴논시 유학생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오후에는 국장단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살폈다. 이날은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졌으며 성 구청장은 백신 접종자는 물론 센터 근무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금은 무엇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은 물론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청년 실업문제 해소 등을 위해 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12년차를 시작한 지난 1일에도 성 구청장은 용산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한 바 있다.

성 구청장은 용산구 최초 4선 구청장이다. 1955년 전남 순천 황전면에서 태어나 1979년 상경, 40년 넘게 용산에서 살았다. 1991년 초대 용산구의원으로 당선됐으며 1998년 '서울시 최연소' 타이틀로 민선2기 용산구청장이 됐다. 이후 민선 5~7기 3기에 걸쳐 주민들의 신임을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산제주유스호스텔 건립 ▲꿈나무종합타운 개관 ▲시 교육청 청사 유치 ▲어르신의 날 제정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건립 ▲용산복지재단 운영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 사업 추진 ▲이태원 지구촌 축제 활성화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용산공예관 건립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 등이 있다.

최만식/기자

서대문구,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와 녹색건축물 조성 연계

서대문구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와 연계, 녹색건축물 조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건축물은 냉난방, 승강기 가동, 환기 등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서울시 전체의 68.8%(2019년 기준, 서울특별시)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5층까지 확대할 수 있다.

구는 이 같은 완화 대상에 '녹색건축물 설계가 반영된 주택'을 우선 반영한다. 단,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 성능 설계 기준'보다 강화한 에너지 저감 조건을 제시한다.

'건축 분야'에서는 서울시 녹색건축성능 지표보다 1단계 상향해 단열재 성능을 강화(0.8 이상 → 0.9 이상)하고 창호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을 상향(0.9 이상 → 1.0 이상)한다. 건물 단열 성능을 높이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입주민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다.

'기계·전기 분야'에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인 냉난방 설비를 사용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된 LED 조명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친환경 분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보급을 위해 공동주택 옥상이나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을 활용해 3㎾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생산된 전기는 공동시설에 사용해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 녹색건축물 조성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양천구,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과 주변지역 활성화까지 소통에 힘쓰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사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간담회, 시장 면담 등 소통의 창구역할에 더욱 힘쓰고 있다.

지난 6월 15일, 구청 열린참여실에서는 국회대로 복개구간 평면 지하화 관련한 민원 간담회가 진행됐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은 신월IC부터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목동운동장까지의 834m 구간에 도로와 공원 간 2.6m의 단차가 발생하는 덮개 구간이 있어 주민들은 지하차도의 전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간담회 이후 김 구청장은 23일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특히, 덮개 구간의 상부가 차도로부터 3m 높게 조성됨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시에서 이 구간에 터널공법을 사용하여 평면화할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김 구청장은 국회대로가 통과하는 강서구와 양천구 간 용도격차로 인해 우리 구 지역 낙후화를 극복하고, 양 구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국회대로를 접하고 있는 강서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임에 비해 우리 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면담에서 지상 공원을 안양천 보행로까지 연결하는 방안과 오목공원을 거쳐 목동유수지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지상 공원은 길이 7.6km, 폭 45~55m의 서울광장 8배가량의 대규모 공원으로, 숲길처럼 길을 따라 오갈 수 있는 선형공원으로 조성된다. 구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이 공원이 고립된 공간이 아닌 인근 지역의 공원과 상업지구로의 확장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상부 공원의 노선 확장도 함께 제안했다.

김 구청장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전면지하화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최종 검토결과가 나오는대로 주민과의 면담,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과 소통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일/기자

성동구,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

서울 성동구는 이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수행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발굴·관리 ▲일자리창출 및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및 우수사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 등 5개 분야에 대해 심사, 성동구를 포함하여 총 12개 기관이 선정됐다.

구는 사회적 금융기관과 연계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과 임팩트펀드 운용 사업을 통해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소셜벤처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온·오프라인상의 판로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34개소, 예비사회적기업 59개소를 발굴·육성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재정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 사업 외에도 민간자본과 매칭을 통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및 임팩트펀드 운용,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기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탄탄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울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89억 원 부과

중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89억2549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본래 납기일인 7월 말일이 토요일이라 납기가 연장되었다. 최종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여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하였다. 이로인한 감면율은 최소 17.6%에서 최대 50%이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고, 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위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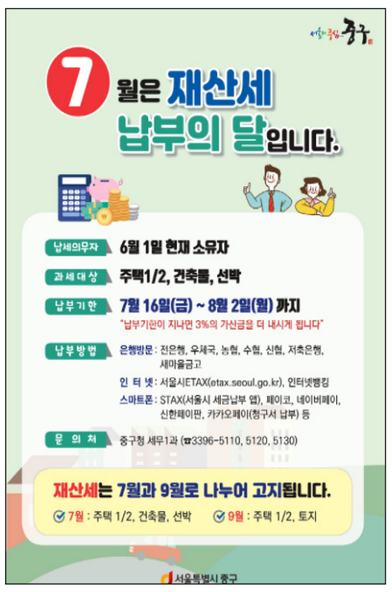
은행 방문 없이 집에서 납부하기를 원한다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모바일어플 STAX(서울시 세금납부)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메일 고지서 납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을 공제 받고,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 원 이상이면 850원)를 적립 받게 된다.

여기에 자동이체를 신청해 기한 내 납부하면, 500원의 추가 세액 공제와 함께 마일리지 500원을 별도로 적립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성실히 납부한 지방세는 주민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기반"이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서초구, 2021년 수해방지대책 운영!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위태롭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였다.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크겠지만 우선은 아이들에게 생명존중, 분노조절, 사회성 증진 등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 용산구가 '아이들이 사회를 만날 때'란 제목으로 오는 12일 '아동청소년 사회성증진을 위한 대국민 공개강좌'를 연다.

대상은 아동청소년들의 부모다. 성장기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을 높이고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 역할을 제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수업은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1시간 30분 간 용산구청 유튜브로 진행되며 강의는 양용준 오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 맡는다.

양 원장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은혜·온세·누가병원 진료과장 및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교수와 개업의로 활동하고 있다.

명상인지치료, 정신분석, 직무스트레스 클리닉, 소아청소년·성인남녀 클리닉 등을 운영한다.

강의는 '사회성이 싹트다 - 부모와 아이의 마음이 만나다', '사회성이 꽃피다 - 가장 소중한 건 나라는 존재' 2부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부모들을 위한 대국민 강좌를 준비했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웃과 더불어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구가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공개강좌 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음주 폐해 예방사업,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심리지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신보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동희/기자

구로구, 서울시 자치구 유일 전분야 '우수상' 수상

구로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시제'와 '우수사업' 전 분야에 걸쳐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구로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량실직을 막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실시한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777개 업체, 4,000여명에 6억2,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1,120여개 업체, 5,580여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구로구와 서울교통공사가 협력해 천왕역사 지하 1층에 조성한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역시 호평을 받았다. 2020년 5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4,787명이 이용한 청년이룸은 4차 산업 관련 IT교육, 취업스터디, 기업연계 활동,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과 AI/VR 면접체험관, G밸리 일자리 매칭센터 운영으로 청년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매년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온라인 채용박람회·해외 수출상담회, 맞춤형 취업교육,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목표치 1만3,500개보다 많은 2만1,54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밖에도 구는 기업 수요에 따라 연령·상황별 맞춤 취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실, 중장년 대상 경비원, 마을버스 운전기사 양성 과정, 중장년 재취업 토털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우수사업 부문'에서는 'G밸리 특화 고용환경 개선과 AIoT산업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로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기업들의 고용환경과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향상(스케일업) 기반을 조성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실시로 50개 기업 고용지원금 수령액 연 4억200만원 증가, 신규 채용인원 260명 증원 등의 결실을 맺었다.

구로구는 이로써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각종 일자리 평가에서 1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2010년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지역일자리 정책 브랜드 사업 부문 우수상, 종합대책 부문 장려상을 시작으로 2011년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전국 경진대회 우수상, 2012년 전국 일자리 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 2013년 전국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우수, 2014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평가 우수,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사회적경제 부문 최우수, 2016년과 2017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특별상과 우수상, 2018년 목표공시제 부문 특별상, 2019년과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12년 연속 수상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천시, 역대 최초 종합대상'대통령상'영예

인천광역시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지난해 15만여 명이라는 역대 최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또한 이 같은 인천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일자리대상 종합대상을 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고용노동부가 대전에서 개최한 뉅년 일자리 대상'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 10년째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일자리 행사이다.

지난 10년간 인천광역시는 일자리 대상에서 꾸준히 상을 받았으나, 종합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시장 및 지역경제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 차례 이상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대대적으로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지역현안이었던 기존 산단의 노후화와 영세화로 인한 고유산업의 경쟁력 저하,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 타 수도권(서울,경기)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수행했다.

기존 산업 일자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단대개조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뿌리산업) 정책을 추진했고,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산학연이 협력한 결과 송도 바이오공정인력센터를 유치했다.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활동공간인'유유기지 부평'개소와 함께 단계별 지원사업인'드림패키지'사업을 확대했으며,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만 15~64세 고용률 특광역시 1위, 여성 고용률 특·광역시 1위, 청년 고용률 전국 1위, 창업기업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실적도 역대 최대인 144,527명(목표대비 115%)을 달성했다.

특히,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별, 산업별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정책을 발굴·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유일의 전담팀을 구축해欄년에도 정기회의 2회, 분과회의 30회를 통해 전문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정책안건을 논의·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한 것이 타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사례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양한 기관, 전문가,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뉴 거버넌스를 일자리정책 추진의 핵심 전략으로 세우고 수행한 결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충격이 지속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녹록치 않은 만큼 2020년의 일자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항공산업의 생존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천형 항공산업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해 항공정비산업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노력중이며, 항공산업 분야 실업자의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에어(Air)잡(Job)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단 대개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산단재생,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함께 시행해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단을'지역주도 혁신 선도 거점'으로 대개조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인천 송도가 아시아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치료제, 백신 등 신약 개발 창업기업을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인천형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민선7기 인천시는'양질의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기조로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집중했다"며 "특히 지난 2019년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총 15건의 제안들은 실제로 정책에 반영,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산업 분야의 안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영등포구, 2021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

영등포구가 지난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2021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단체를 매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와 통합하여 이루어졌으며, ▲사회적경제 전담 조직 구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지역 교육청, 학교 연계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교육 내용의 적정성 등 6개 분야에 걸쳐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심사했다.

2021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곳만 선정되었다. 특히 영등포구는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시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상'과 함께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를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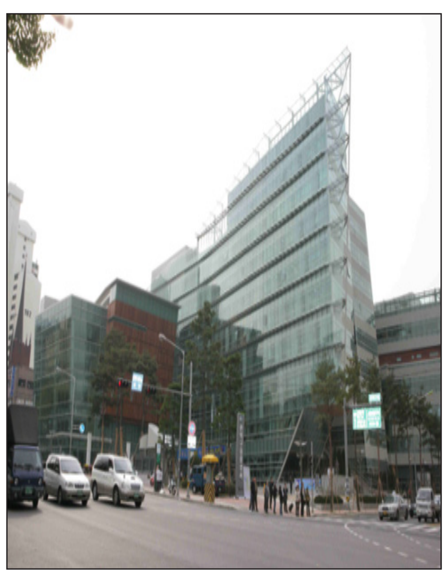
구는 서울시립대 창업지원단을 비롯한 관내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과 학교-마을 간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총 4,70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지원함으로써 생애주기 첫 단계에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의 기회를 마련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는 ▲사회적경제 랜선 주민교육 ▲지역주민 대상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지역주민 대상 협업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기본교육 웹툰 제작 및 배포 ▲영등포시장역 마켓마당 활용 사회적기업 홍보 ▲영등포구 공동브랜드 포포그레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은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학교, 그리고 마을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상생 협력을 통해 생활 속 사회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으겠다."라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관악구, 6회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관악구가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민선7기 3년간 6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구는 특별교부세 3천 5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교부 받아 구민을 위한 사업비에 투입할 계획이며, 2018년 하반기부터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총 4억 4천 900만 원에 달한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부문, 일자리 부문 집행실적을 합산해 평가하며, 경기 침체시기에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지출로 경기 충격을 완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1천 3백 33억 원(57.3%)을 집행, 목표액 대비 2.2%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조기에 확장적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한 관악구의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로 평가된다.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하수관로 정비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선금, 기성금을 적기에 투입,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부문의 재정을 중점 집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펼쳤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사업을 추진해 목표율을 초과 달성했다"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우리 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남동구, 도심 속 휴식 공간 '소래 소공원' 조성

인천시 남동구는 논현동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소래 소공원을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4,610㎡ 규모의 소래 소공원(논현동 66-96일원)은 지난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추진됐다.

지난해 말 1단계 공사를 통해 전체의 80%를 조성하고, 최근 나머지 20%에 대한 2단계 사업을 준공했다.

소래 소공원은 순환산책로, 휴게·운동 공간, 잔디광장 등의 공간을 갖추고, 소래포구의 지역적 상징성을 반영해 위에서 내려다보면 물고기 모양을 형상화한다.

구는 2단계 공사를 통해 소래습지 생태공원 측 부출입구에서 중앙 광장으로 산책로를 연결하고, 인접한 건물을 해송과 계수나무로 차폐하는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목을 도입한 도심 속 그린(Green) 인프라로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부평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인천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지난 5년간 현장 활동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례가 총 40건, 51명으로 대부분이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폭행 예방, 대응 장비 설치 ▲법률 등 제도정비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향정 119구급팀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대원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시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다."라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영등포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로 도시미관 UP!" 부착방지시설 1,227개 설치

영등포구가 경인로, 시흥대로 일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총 1,227개를 설치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부착된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이지만 부착형 광고물의 특성상 한번 부착된 후에는 제거하기가 쉽지 않고 그 흔적이 남아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신길로, 시흥대로 등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신주에 부착방지판을 새롭게 설치·교체하고, 특수기능성 물질이 함유되어 벽보, 전단 등의 유동 광고물 부착이 불가능하게 하는 도료 도포공사를 실시했다.

부착방지판은 총 649개 전신주, 통신주, 가로등주에 설치하였으며, 신길동 신축 아파트단지 주변의 유동인구가 많은 ▲영진시장~해군호텔, ▲신길중학교~대영고등학교 일대 총 3.2㎞ 구간과, ▲시흥대로 고가 밑~대림사거리~신길주유소 교차로 일대의 2.4㎞ 구간에는 낡은 방지판을 제거하고 새로운 방지판으로 교체 설치를 마쳤다.

도료 공사가 시행된 구간은 ▲당산역~문래공원사거리~문래동사거리 ▲문래중학교~SK리더스뷰 ▲영등포로터리~도림교차로 총 6.4㎞ 일대로, 전신주 235개, 신호등 95개, 통신주 79개 등 총 578개소의 시설물에 부착방지 도료의 도색을 실시했다.

한편, 구는 불법광고물 상습부착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정비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2010년부터 부착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향후 구는 불법광고물 야간·주말 특별정비활동, 벽보 및 현수막 수거 보상제, 광고물 흔적 지우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으로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부착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방지시설의 확대 설치로, 걷고 싶은 거리, 탁 트인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광명시, 위생업소 방역수칙 특별 합동 점검 방역수칙 위반 29명 적발

광명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체계가 연장됨에 따라 지난 2일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확진자가 700명대를 넘어서고 델타변이 감염사례가 4.5%로 늘어나는 등 재확산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을 막고자 마련됐다.

합동 단속반은 광명동 소재 유흥주점으로 유흥접객원과 이용객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자, 손님 등 14명을 적발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광명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영업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영업자와 이용자 등 14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학온동 소재 음식점에서 10여 명이 모여 회식을 한다는 민원이 위생과로 접수됨에 따라 광명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현장을 확인했다

광명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와 이용자 14명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체계 연장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관내 유흥·단란주점과 홀덤펍에 대해 영업을 전면 금지한 상태로 광명시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광명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한 업소는 총 43개소, 이용자는 총 259명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확진자 증가 등으로 현 방역수칙이 연장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광명시민 모두가 방역 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순희/기자

안성시 고삼면, 경로당 운영 재개에 따른 폭염 대비 및 방역 점검 실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 중이던 경로당이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 및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활용을 위해 운영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고삼면사무소에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관내 경로당 24개소를 직접 방문해 폭염 대비 및 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김부식 면장 외 직원 12명이 참여하였으며, 여름철 폭염이 우려되는 만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로당의 냉방장치를 점검하고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전파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방역물품을 전달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부식 고삼면장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해진 상황이 아니므로 경로당 이용 시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경로당 내 취식 행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면서 경로당 이용의 고충에 대해서도 귀담아들었다.

신창리 경로당 임병욱 노인회장은 "개인별 예방수칙 및 시설 운영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회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원종균/기자

광주시 남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49곳 현장 점검

중대한 위반 사례 발견시 행정처분 등 조치

광주 남구는 7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49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비 사용기준 준수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며, 시설 운영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개선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수증과 통장, 후원금 관리 등 회계 분야에 대한 점검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종사자 자격 적합성도 체크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시설별 점검 결과 부적정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 정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 실적 등을 반영해 각 지역아동센터별 운영비를 감액 조치하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보조금 반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양양군, 피서철 공중화장실 특별점검

양양군은 피서철을 맞아 관내 관광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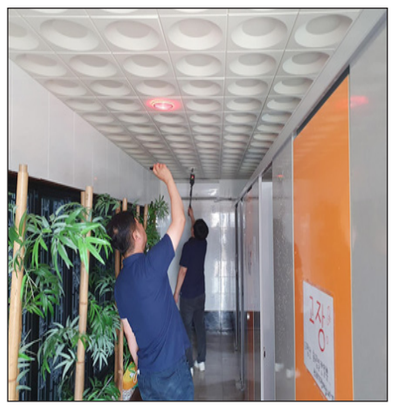
군은 9일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관광객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 항포구, 국도변 휴게소 등 45개소의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파손, 청소상태, 전담 관리인 지정여부와 위생·편의용품 비치상태 등 시설관리 및 유지관리 상태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조속히 정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7월23일부터 속초경찰서와 합동으로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36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 마을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7개소에 휴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급하여 항시 비치토록 하는 한편 청소인원 상주 확인 등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항상 청결을 유지함으



로써 깨끗한 관광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관광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음식점, 주유소 등 피서객이 집중되는 개인사업장에 대한 시설주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읍면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화장실은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으로 화장실의 관리상태가 지역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며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해 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67개 추가 설치

천안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난 7일자로 무인교통단속장비 67개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19년 12월 24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시는 앞서 16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72개를 설치했고, 올해 67개를 설치 완료해 총 139개를 운영하게 됐다.

오는 10월까지는 학교, 녹색어머니회, 동남경찰서, 서북경찰서, 도로교통공단등과 현장조사를 완료해 75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설치를 완료하면 총 214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행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운전자는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제로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진안군, 미등록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진안군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청정 지하수 보존을 위해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여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불법 지하수'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을 말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용부담과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시설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한다.

이와 관련해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지적도, 준공신고서 등의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원상복구 계획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 군민들이 적극 참여해 지하수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오염 예방에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상하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종철.이희철/기자

청송군, 하절기 대비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나서

청송군이 태풍·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관내 노인복지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노인복지시설의 자체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피해 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으며, 담당공무원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현장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절기 풍수해 및 혹서기 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 여부 ▶책임보험가입여부 ▶감염병 관리 대책 ▶소방·가스·전기안전관리 상태 ▶코로나19 대응지침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요청해 다음 안전점검 시 재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노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의정부시, 풍수해 대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실시

의정부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강우량과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7월 5일부터 12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토목, 전기, 기계, 발전시설, 수목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은 2021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시설 내에서의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많은 비로 인한 하수량 증가로 발생하는 월류사태에 대처하여 주변하천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유지하는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다.

해당 점검은 장암동 소재 시설뿐만 아니라 낙양물사랑공원도 포함하여 실시하며, 기계시설물은 현장직원들을 중심으로 각 처리장별 배관설비와 펌프의 상태 및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전기시설물은 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누전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풍수해 대비 상황별 비상근무 요령 및 사고 유형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감시반을 통한 실시간 수량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우려되므로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숙지를 통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철저한 사전대비 태세를 갖춰 안정적인 시설운영 및 자연재해 안전사고 원천 차단을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

한영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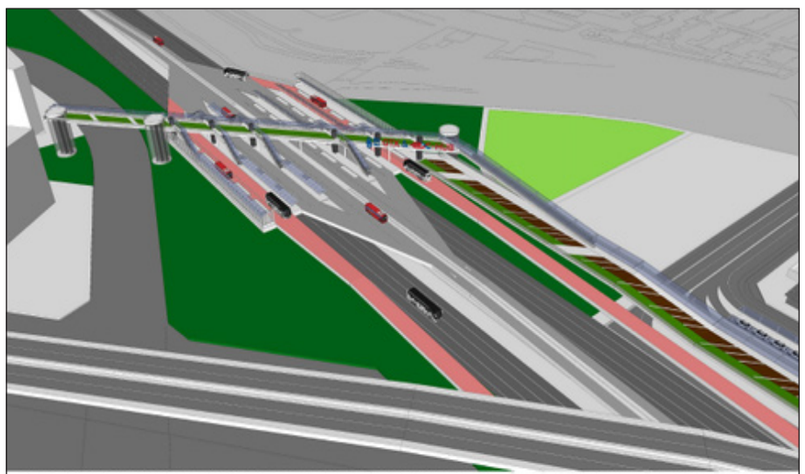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경부고속도로와 GTX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용인시-한국도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 5자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이하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용인역을 연결하는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고속도로에 GTX 역사를 연계한 환승체계는 국내 최초다.

경기도는 최근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부고속도로-GTX 용인역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 규모로 2028년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 수인·분당선 구성역에 환승역으로 설치될 GTX-A노선 용인역(보정동 소재)은 2023년 개통할 예정으로, 하루 기준 철도 이용 수요가 2030년 약 7만2,000통행으로 예상된다. GTX 용인역은 GTX 30개 환승센터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 연계 환승이 가능한 곳이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참가하여 우수역사로 선정('20.11.11.)된 공모(안)으로서 환승체계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세부 개발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와 한국도로공사는 GTX 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환승정류장과 보행통로를 설치·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버스(고속, 시외, 광역, 통근 등) 및 차량에서 GTX 용인역으로 바로 환승이 가능해 이용자들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용인시는 환승체계 구축 관련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총괄하고 용인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환승체계 구축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플랫폼시티 조성계획과 연계를 검토한다.

협약기관들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지역의 환승 수요 확대와 효율적인 도시공간 활용을 위한 환승지원시설(친환경 충전시설, 편의시설, 복합 상업·업무 시설 등) 설치 등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돼 토지이용계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속도로에 환승체계를 구축하면 버스-철도(GTX, 분당선)-택시-자동차-보행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도시가 조성될 것"이라며 "협약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교통에 큰 강점을 가진 특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GTX 용인역과 경부고속도로를 연계하는 환승정류장 설치 아이디어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제출해 기본계획비(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일 '경부고속도로-GTX 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내년 5월까지 용역을 통해 환승센터 사업 대상지 일대 교통·환승·시설 이용수요 등을 예측하고, 환승시설 설치 규모·배치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안성시 대덕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 개최

대덕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지난 6일, 대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행복마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행복마을 6월 사업 보고와 하반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대덕 행복마을 운영위원회는 대덕면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방안과 주민교류 프로그램 발굴, 지역특색 임무 발굴, 주민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대덕 행복마을의 상반기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공통사업으로 공구대여, 쓰레기 투기지역 감시와 환경정비, 지킴이와 사무원의 역량강화교육, 안전 순찰과 불법 광고물 제거,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 지원 등을 진행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식 개선사업인 수어교육, 생활민원처리, 폐현수막 업싸이클, 담배꽁초 수집기 설치, 푸드뱅크 먹거리 사업 등을 펼쳤으며, 공모사업으로는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시민동아리 한글 교실, 1인 가구 공동체 공동부엌 사업 등의 성과를 올렸다.

윤석원 대덕면장은 "행복마을에서 다양한 시민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각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하며 "내리 거주 외국인은 내리 원주민의 행동양식을 보고 배우기에 외국인들을 설득하기 전에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고국부 행복마을 운영위원은 "내리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시혜 차원의 프로그램은 훌륭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으나, "내리에서 모두 지켜야 하는 규칙을 어기는 외국인이 많기에 이런 외국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문화 축제에는 내국인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달 개최된 안성시의 2021년 상반기 대학생 행정인턴쉽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내리 대학인마을 원주민과 외국인의 갈등 해소방안'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대덕면과 중앙대, 행복마을과 광덕초등학교는 연구과제를 통해 제안된 중앙대학교 동아리 연계프로그램, 한국장학재단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동일문화 공유 프로그램, 원주민 대상 단계별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덕 행복마을은 7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8월에는 사단법인 열린의 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내리 고려인과 원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9월에는 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 및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과 함께 '내리 고려인과 원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원종균/기자

부천시 유한대학교,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MOU체결

부천시 유한대학교 지역사회협력봉사센터는 최근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과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창업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중 총장, 윤기영 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와 재학생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의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인적교류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협약내용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발굴 및 운영 ▲창업지원 연계 및 인적교류 지원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예비창업자 육성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기타 협력이 가능한 모든 사항 등 이다.

김현중 총장은 "유한대학은 지역사회에 평생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천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대학들 가운데 최초로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운영기관에 선정되는 등, 설립자이신 유일한 박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눔과 봉사 정신을 통한 사회환원을 실천하고 있다."며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와의 오늘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의 협력과 봉사, 지역청년 및 재학생들의 창업문화 확산, 창업지원 등 상호간 인적·물적 교류와 발전을 위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한대학교는 최근 신산업분야 특화선도전문대학 선정, 자율개선대학선정, 후진학선도형지원사업 선정, 고숙련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취업보장형 유니테크 육성 사업 선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 완화와 폭 넓은 지원으로 명실상부 대내·외적으로 실무중심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순희/기자

수원 행궁동 ˙ 반딧불이 연무시장 ˙ 장안문 거북시장, '스마트 상가'로 거듭난다

수원시 행궁동, 반딧불이 연무시장, 장안문 거북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스마트 시범상가 공모'에 선정됐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스마트 오더(주문)와 스마트 기술을 모두 보급하는 '복합형'과 스마트 오더를 보급하는 '일반형'이 있는데, 행궁동·반딧불이 연무시장은 '복합형', 장안문 거북시장은 '일반형'에 선정됐다.

복합형에 선정된 행궁동과 반딧불이 연무시장 시범상가에는 9월까지 비대면 주문·결제를 지원하는 키오스크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형에 선정된 장안문 거북시장 시범상가에는 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해 예약·현장주문 결제를 지원하는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도입한다.

조이화 행궁동 상인회장은 "행궁동은 스마트 앱 활용이 능숙한 젊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며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행궁동 골목 여행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기술도입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콘텐츠를 발굴해 지속가능한 상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근/기자

'파주놀이구름'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 확보

파주시는 지난 5월 준공한 전시체험공간 '파주놀이구름'의 외부환경정비 등의 사업관련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

파주놀이구름은 민선7기 최종환 파주시장이 역점사업 및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시는 EBS의 캐릭터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10여년간 장기유휴공간인 유비파크를 리모델링해 가족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했으며 지난 5월 5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은 주차장, 외부데크 보행로 등을 개·보수하고, 파주놀이구름 및 공원이용객의 편의증진, 어린이 문화체험공간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에 투입된다.

파주놀이구름의 정식개장 시기를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거나 현 단계(2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7월 말로 계획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과 협력해 경기도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쉼의 공간을 제공하고 시너지 효과도 거두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남양주시 페리카나 퇴계원점, 매주 수요일 한부모가정 아동들에게 치킨 후원

퇴계원읍(읍장 이형진)은 8일 페리카나 퇴계원점(대표 하영선)이 매주 수요일마다 한부모가정 아동들에게 치킨을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계원읍에 따르면 페리카나 퇴계원점은 지난해 4월부터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용희)와 후원 협약을 맺고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 내 아동들을 위해 치킨을 제공하고 있으며,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오후 4시까지 준비된 치킨을 전달받아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고 있다.

페리카나 퇴계원점 하영선 대표는 "지역 사회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 아이들에게 매주 직접 만든 치킨을 지원하고 있다. 치킨을 기다릴 아이들을 생각하며 보람된 마음으로 후원을 이어 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용희 위원장은 "무더위에도 각 가정을 찾아가 치킨을 직접 전달하며 이웃을 살펴 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이웃들을 두루 살피며 지역 내 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형진 퇴계원읍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페리카나 퇴계원점 하영선 대표님과 이웃들을 위해 다각도로 활동하고 계시는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스마트 온라인 공부방 조성 지원 사업', '독거노인 외식 지원 사업', '설 나눔 꾸러미 사업', '추석 나눔 꾸러미 사업', '건강한 여름 나기 꾸러미 사업', '정성찬 밑반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안승남 구리시장, BGF리테일과 "폭염 쉼터" 협약 체결

구리시는 5일 시청 3층 민원상담관실에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BGF리테일 경기동영업부와 BGF리테일의 가맹점인 CU편의점을"폭염 쉼터"로 지정·운영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폭염 쉼터"는 폭염 발생 시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CU편의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문제를 예방하고자 관내 CU편의점 50곳이 참여한다. 매장 크기·휴게 공간 등의 여건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8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BGF리테일 경기동영업부 송훈철 부장은"앞으로 시민들의 삶과 밀착된 우리 CU편의점이 지역사회와 함께 공익적 쉼터 역할을 맡아 구리시민들이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겨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코로나19로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동네 편의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구리시도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GF리테일은 전국 CU편의점 인프라를 이용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실종아동, 아동학대, 치매노인 등을 신고하고 안전하게 해당 기관에 인계하는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최만식/기자

남양주시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탐방 행사 '금곡.. 역사를 기억하다' 개최

남양주시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승훈)는 지난 6일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 해설사가 돼 진행하는 마을 탐방 행사 '금곡.. 역사를 기억하다'를 개최했다.

금곡동 주민자치위원 7명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마을 탐방 코스 설계 및 기획, 개별 해설 시연 등의 교육을 이수했으며, 마을 해설사로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발전해 가는 금곡동의 과거와 현재를 해설했다.

이날 첫 번째로 진행된 행사에 참여한 금곡초등학교 학부모회 20여 명은 "그동안 금곡동에 살면서도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던 우리 마을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라며 마을 탐방 행사에 열띤 호응을 보였다.

이에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승훈 위원장은 "도시 재생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민이 적극적으로 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손일성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주민자치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역사가 깊은 금곡동이 도시 재생을 통해 계속 변화되는 모습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마을 탐방 행사 '금곡.. 역사를 기억하다'는 금곡동의 새로운 명소가 된 이석영광장에서부터 홍유릉 등 관내 문화재를 둘러보는 A코스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 금곡동 일대를 둘러보는 B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평택시, 서부지역 '수소충전소' 준공

평택시는 서부지역인 현덕면 기산리에 '수소충전소 평화'가 오는 12일 상업 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역 수소충전소에 이어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두 번째 수소충전소로 서부지역 충전시설 부족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충전소 평화(평택시 현덕면 서해로 502)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8일부터 11일까지 무료충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12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승용차 하루 최대 65대 충전이 가능하며 30분에 5대 연속 충전할 수 있어 차량이 몰리더라도 대기시간 없이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자동차의 보급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튜브트레일러 지원으로 운송비용을 절감해 인근 지역보다 저렴한 kg당 8,000원에 수소를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수소충전소 평화의 준공으로 서부지역 수소자동차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만큼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과 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북부지역(블루에너지) 수소충전소 준공에 이어 금년 서부지역 수소충전소 평화 준공, 남부지역 수소버스충전소 준공계획으로 균형적인 수소인프라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도시 실현과 친환경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남주/기자

하남시, "아름다운 하남, 시민 손으로" 시민화단 9개소 분양

하남시는 지역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시민화단' 9개소를 이달 14일까지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정비되지 않은 자투리땅을 시민들이 스스로 가꿀 수 있는 화단으로 활용해 경관을 개선하기로 하고, 고사목 등 폐자재를 재활용해 원도심 등 유휴지 9개소에 화단기반 조성을 완료했다.

시민화단은 시에서 화단기반과 수목(초화류), 안내판 등을 제공하며, 분양받은 시민들은 시와 협의해 수종을 정한 후 화단에 직접 식재하고 오는 2022년 말까지 가꿔나가게 된다.

하남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세대 당 1개소를 분양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해 이메일 또는 우편, 시청 공원녹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분양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고, 결과는 오는 16일 개별 통보된다.

시는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고 가꾼 개성 있는 화단이 시 곳곳에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민화단을 통해 그간 활용되지 않았던 지역 곳곳의 빈 땅이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구리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억6천7백만 원 세외수입' 확보

구리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1억6천7백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7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부에서 할당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이후 여분과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한 만큼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초과 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거래 가격의 3배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리시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배출권 대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사기업, 공사 등 총 648개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구리시의 온실가스 배출권 대상 사업장은 ▲구리시자원회수시설 ▲구리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토평정수장 ▲우미내하수처리장 ▲재활용품중간처리장 ▲갈매하수처리장 등 총 7개소이다.

시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 결과를 한국품질보증원의 검증을 거쳐 6월 말 환경부에 최종 제출했으며, 구리하수처리장의 소화조 분뇨 직투입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감소 방안을 실천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 잔여량 총 34,353톤을 확보했으며 이 중 25,000톤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위해 이월했고 잔여량 9,353톤은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해 판매하여 1억6천7백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안승남 시장은"2015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처음 판매수익을 얻게 된 것이라 뜻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구리시는 그린뉴딜 선도도시로서 점점 강화되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에 적극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김종천 과천시장, 중앙공원 순찰 실시… 음주 및 마스크 미착용 단속

과천시는 6일 저녁 10시, 중앙공원 일대 순찰에 나섰다.

이날 순찰은 지난 4일,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발표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밤 10시 이후 야외에서 음주가 금지되고,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순찰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과천시 자율방범연합대, 별양지구대 등 15여 명이 참여하여 1시간 가량 중앙공원을 돌아보며, 음주와 마스크 미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였다.

김종천 시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예방에 힘쓰는 자율방범연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과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 안전한 과천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성율/기자

구미 하이테크밸리 연료전지 건설 투자협약체결

그린뉴딜 적극 참여, 신에너지 신성장동력 마련

구미시는 7월 6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송재섭 한국서부발전㈜ 부사장, 안병환 ㈜VTGMP 부회장, 정상기 미래에셋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 부회장, 이왕재 SK에코플랜트 부사장, 김학봉 KJ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도·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하이테크밸리 연료전지 건설사업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투자기업인 한국서부발전㈜, ㈜VTGMP, 미래에셋 에너티인프라자산운용㈜, KJ그린에너지㈜는 구미5공단 하이테크밸리 내 1만 6천여평 부지에 2022년 19.8MW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약 1,500억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90MW의 연료전지 발전소(약 6,000억원)를 확대할 예정이다.

90MW 발전소 완공 시 4인 가구 기준 25만여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725,310MWh, 구미시 연간 전력사용량의 약 7%)을 생산한다.

사업 공동시행사인 VTGMP와 KJ그린에너지는 지난 6월 1단계 사업 진행을 위한 부지 5,000평을 확보했으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본 사업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친환경·청정에너지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제로도시 구축 및 지역 시공업체와 지역 생산 연료전지 사용에 따라 직·간접 고용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은 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분리해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설로, 서울 · 부산 등 대도시에서도 건설 · 운영되고 있으며 발전효율이 높고 소음이 적으며 매연 등이 없는 친환경 · 고효율 청정에너지 시스템이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24시간, 365일 가동이 가능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효율 35%에 비해 약 2~3배 정도의 고효율 발전설비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에 감사를 전하며 "본 사업을 통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구미시 전력자립도를 높이고, 2050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남궁영기/기자

경북도, 1시군-1특화 작목 육성 본격 착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발전 계획 수립, 특화작목 연구개발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화 및 청년농업인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경북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경상북도는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를 제정('20.1.9.)하고 참외, 복숭아 등의 12개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해 소득과 직결된 연구 개발, 기반조성, 성과확산 사업에 95억원을 투입해 특화작목을 국가브랜드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북지역은 대체로 온후한 기온이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고품질의 농산물 재배에 적합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참외, 마,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등 12작목 이상 전국 1위 작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생산액은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번 발전계획은 지역특화작목 품종 육성·보급, 안정생산기술 연구·개발, 연구과제 협업체계 구축으로 소비자 맞춤형 품종 개발, 농산물 수출 20%향상, 노동시간당 생산성 10% 증가 등을 목표로 4대 분야 8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R&D분야에는 지역특화 디지털 품종 육성 및 스마트 재배기술개발,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성과확산 부분으로는 농산업 환경변화 대응 농업기술정보 신속 확산, 농촌체험·치유·향토음식 활용 농업·농촌 6차산업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혁신기반 분야에서는 농업 R&D 인프라 구축, 특화작목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정비 분야에서는 연구개발과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특화작목 발전계획 및 운영관리 부분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신용습 경북농업기술원장은 "9개 지역특화작목연구소를 거점으로 특화작목 연구개발을 강화를 통해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최소화하여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농업기술원은 지금까지 복숭아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미황, 홍백 등 14품종을 육성하고 299천주(1,000ha)를 보급하였으며 이는 연간 323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삼의 연작장해를 극복하고 생산효율 증대를 위해 다단베드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토경재배 대비 면적활용도는 2.4배 증대되었고 생산성은 3.7배 향상되었다. 이로 인해 농가소득은 3.5배(2→7억원/ha)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세기/기자

경주시립 칠평도서관 여름방학 특강 진행

'슬기로운 방학생활:여름독서클럽', '놀면 뭐 하니? 코딩이나 배우자!' 두 가지 주제 특강 진행

경주시립 칠평도서관은 다가오는 여름방학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슬기로운 방학생활:여름독서클럽', '놀면 뭐 하니? 코딩이나 배우자!' 두 가지 주제의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슬기로운 방학생활:여름독서클럽'은 이번달 2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초등 저학년부(1~3학년, 매주 토요일 14:00~16:00) △고학년부(4~6학년, 매주 수요일 10:30~12:30)로 나뉘어 진행된다.

안강읍 소재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이 참여할 이번 특강은 만들기와 함께하는 책 읽기(저학년부), 영화와 함께 하는 책 읽기(고학년부)를 주제로 진행된다.

'놀면 뭐 하니? 코딩이나 배우자!' 특강은 '환경'을 주제로 오조봇(코딩수업 미니로봇)을 활용한 코딩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10:30~12:30에 진행되며, 초등 1~6학년이 대상으로 모집인원은 10명이다. 특강에 참여하려면 오는 13일 10시부터 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립도서관 박용섭 관장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릴지도 모를 여름방학을 좀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여름방학 특강을 추천한다"며, "어린이들이 다양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문경 단산 관광모노레일 장마, 휴가철 '안전' 이상 무

문경 단산 관광모노레일은 지난해 4월27일 개장하여 2021년 6월 말 기준 7만여명의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찾고 있다.

문경시는 TV프로그램(바퀴 달린 집,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등)과 아이돌 유튜브 공식채널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문경에서 꼭 가봐야 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개통예정인 문경고속철도와 연계하여 변화하는 문경시의 관광패턴에 맞추어 문경새재에 비길만한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경단산 관광모노레일은 국내 최장(왕복 3.6km), 최고경사(42도)를 자랑하는 산악형 모노레일이다. 지난 4월21일 궤도시설 공식 검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처로부터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운영사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은 『매 분기별 자체검사(3일)』와 『매주 월요일을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레일, 지주, 차량등 전 시설 점검과 『매일 운행전·후 전차량 시운전』을 실시함으로써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전세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춘 언택트 관광지로 개장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제로(0명)의 위엄을 달성하였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단산 관광모노레일은 문경의 명산과 백두대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써, 정상에 오르면 별빛전망대, 숲속캠핑장, 사계절썰매장, 챌린저시설, 패러글라이딩, 힐링올레길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인근에 다양한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문경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울진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보고회 개최

울진군은 지난 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전찬걸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호우, 폭염, 가뭄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서별 재해우려지역을 사전점검하고, 조치사항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재해우려지역의 사전점검 후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추가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빈틈없는 사전대비"라며"코로나19로 이미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자연재난으로 다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자연재난 피해가 없는 해로 만들자"고 당부하였다.

한편, 회의에 앞서 지난 5일 전찬걸 군수는 상습침수구역인 월변지구, 읍내지구를 방문하여"장마대비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다하라고"지시하였다.

김기현/기자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달서구의 도전과 기회 !

대구 달서구은 지난 7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달서구만의 차별화된 추진전략 및 실행기반 마련을 위한'달서구 스마트도시계획(5개년)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3월부터 달서구만의 스마트도시 모델을 창출하고 첨단 ICT기술 및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조성 비전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이다.

준비단계로 지난 3월 스마트관련 공공기관·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스마트도시조성의 기본방향, 스마트도시 현황과 관련 기술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달서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조성 비전 및 추진방향 ▶달서구에서 실현가능한 스마트도시 구축 추진목표와 전략 등을 제시하고 분야별 서비스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오는 8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달서구에 특화된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달서구형 스마트도시 모델창출을 위한 「달서구 스마트도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보고회 때 논의된 내용을 내실있게 잘 마무리하여 달서구형 스마트도시 조성 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김천시민 행복 충전소! '행복팡팡 사이버스쿨센터' 운영

김천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활동 증가 및 시민의 정보화 욕구를 반영할 온·오프라인 정보화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오는 7월 7일부터 "김천시민 행복팡팡 사이버스쿨센터"를 운영한다.

「김천시민 행복팡팡 사이버스쿨센터」는 총 8개 분야 477개의 사이버 강좌 5,608편의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강좌로는 IT·컴퓨터, 어학, 자격증, 자기계발, 건강, 생활취미, 인문교양, 여성·자녀·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사이버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강좌 이용방법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행복팡팡 사이버스쿨센터"접속 또는 김천시민 행복팡팡 사이버스쿨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한 후 쉽고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다양한 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성환 정보기획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프로그램이 위축됨에 따라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강좌를 개설했으며,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사이버 교육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으며, 아울러 "「김천시민 행복팡팡 사이버스쿨센터」가 시민의 일상생활 속 '소확행' 실현을 위한 지식공유의 장으로 활용되고 배움의 장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됨으로써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전국 제일의 명품교육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산청군 건가다가 경남 우수사업 발표대회 대상

도내 20개 센터 중 최고상…'책이랑 놀자' 호평

산청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인선)가 '2021년 경남도 다문화가족지원 우수사업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7일 군에 따르면 해당 대회는 경남도 주최, 경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도내 20개 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대상을 수상한 산청군 건가다가센터의 우수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성장지원사업인 '책이랑 놀자'와 '꿈길만 걷자'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산청군에서는 2019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책이랑 놀자'는 미취학 자녀 대상 동화책 독서코칭 사업이다. 어린이 도서연구회 산청지부 회원들이 활동가로 나서 주 1회 한글·독서습관 교육을 지원한다.

'꿈길만 걷자'는 취학 자녀 대상 맞춤형 학습 지원사업이다. 학습도우미를 통한 개별 학습을 지원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등 올바른 성장을 돕는 효과와 지속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인선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프로그램 추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활동가 선생님들과 산청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다문화가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김해시, 혹서기 전력난 극복 에너지절약 추진

김해시는 '하절기 에너지절약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 발표에 발맞춰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 전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내 냉방온도 기준과 전력수급 위기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하절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냉방설비 가동 시 적정 실내온도 준수, 조명 및 옥외광고물 전기기기 사용 합리화,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냉방기 순차운휴 등을 실시한다.

올 여름은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실내 냉방온도 기준을 예년보다 1℃ 낮은 27℃로 완화해 시행하며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60%이상 가동하는 건물은 26℃이상 실내 냉방온도를 관리하기로 했다.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일정 공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냉방온도 제한 예외시설로 정해 자율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관리하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민간부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표적 에너지 낭비요인인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하고 실내 권장온도 26℃를 유지하도록 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복지시설 20개소에 이어 올해 어린이집 12개소의 LED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시설 개선과 단열, 창호, 바닥공사, 고효율 보일러, 절약형 냉방기기를 지원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측되는 올 여름 정부에서 발표하는 전력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자체 에너지절약 실행계획을 솔선수범해 전력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부산시, 자성대공원 등 공원 3곳 명칭 개정 추진

일제강점기 명칭 부여된 동구 자성대공원, 부산진성공원으로 명칭 개정 추진

부산시가 동구 범일동 일원 '자성대공원', 부산진구 개금동 일원 '개금공원', 사하구 다대동 일원 '근린공원' 등 3곳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명칭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6월, 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행정 편의상 지어진 명칭을 공원의 상징성·역사성 등을 반영한 명칭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군을 통해 개정대상지를 파악하였으며 3개 공원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먼저, 동구 범일동 590-5번지 일원에 위치한 자성대공원은 '부산진성공원'으로 명칭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1944년 1월 3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14호로 공원으로 결정되면서 명칭이 부여되었으나, 자성대(子城臺)라는 명칭이 일본식 성곽 표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1월 15일, 부산시 기념물 제7호(1972.6.26.지정) 「부산진지성」이 「부산진성」으로 명칭을 변경 고시하면서 자성대공원 또한, 「부산진성공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시는 이를 적극 반영해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산진구 개금동 56번지 일원의 '개금공원'과 사하구 다대동 1548-10번지 일원의 '근린공원'도 해당 공원 고유의 특성과 성격에 맞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다. 시는 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명칭을 선정하여 개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장공원의 경우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 3개 구에 걸쳐 있어 명칭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중으로 이번 개정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시는 향후 사업 완료 이전까지 시민들의 의견 청취 과정 등을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공원 명칭은 7월 중 구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이후 시, 국가 지명위원회를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정체성이 모호했던 공원의 명칭을 그 성격과 특색에 맞는 친근하고 공감이 가는 이름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이번 공원 명칭 개정을 통해 공원 가치를 재창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2021 울산 수소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울산경제자유구역청(UFEZ)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저차원탄소혁신소재연구센터는'2021 울산 수소아카데미'에 참여할 수강생을 지난 6월 30일부터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2021 울산 수소아카데미'는 오늘 7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테크노산업단지 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산학융합캠퍼스 대강당 106호에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관련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된다.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 인원은 총 100명(회차당 오프라인 40명, 온라인 60명)이다.

2021 울산수소아카데미 누리집 또는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1 울산 수소아카데미는 △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 전망 △ 해외 수소경제 사례 △ 수소생산 및 운송 △ 수소 인프라 안전기술 △ 수소사회와 친환경 모빌리티의 이해 △ 토크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다.

아카데미 수료생에게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며, 교육을 수료한 시민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시민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울산과학기술원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울산 시민들을 위한 수소 관련 맞춤형 정보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수소 중심 도시 울산 브랜드 이미지 정착과 시민의식 제고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산청 '차황 메뚜기쌀' 최고 밥맛 인정받았다

경남 브랜드 쌀 평가서 최우수상 수상

광역친환경단지 지정 지역인 산청군 차황면에서 생산된 '차황 메뚜기쌀'이 2021년 경남 브랜드 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차황 메뚜기쌀'이 생산되는 차황면은 지난 2007년 지역 전체가 광역친환경단지로 지정됐다.

특히 일교차가 큰 지역이라 병충해가 적고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 덕분에 메뚜기는 물론 논우렁이와 여치가 발견되는 건강한 곳이다.

'차황 메뚜기쌀'은 자연순환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친환경 쌀이다.

품종은 추청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찰기도 적당해 좋은 밥맛을 자랑한다. 당일 도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납품, 부산YWCA, 군 직영 산엔청쇼핑몰 등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차황 메뚜기쌀'은 이번 경남 브랜드쌀 최우수상 수상으로 포장재 지원과 양정시설 지원 등 2022년 도비 지원사업을 지원 받게 된다.

또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21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참가 자격도 얻게 돼 전시·판매 등 소비촉진 행사와 홍보부스 설치비 등도 지원 받는다.

한편 이번 평가는 경남도 주관으로 도내 단일 품종 쌀 상표 중 시군의 추천을 받은 13개 상표를 대상으로 했다.

직접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을 구입해 전문기관과 식미 전문가의 평가를 의뢰했다.

전문기관 평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물질 검사 등 14개 항목의 외관상 품위평가와 품종검정 지정기관인 솔젠트(주)에서 품종혼입률 평가, 한국식품연구원의 단백질 함량 평가와 전문가의 밥맛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기준은 계약재배와 판매실적, 포장지 표시사항, 법규 위반 등 상표 관리실태를 비롯해 소비자 평가 등을 종합해 최종 평가했다.

최경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수상은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해 힘써주신 모든 농업인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농기술 지도와 행정지원으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사천시,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

사천시치매안심센터가 지난 6월 3일 선구동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7월 2일까지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사천시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현판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치매극복 선도기관(단체, 기업, 기관, 학교)은 치매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다양한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천시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모든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모두 수료함에 따라 사천시치매안심센터로부터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에는 가현사천복지센터, 나눔재가복지센터, 동행재가복지센터, 임마누엘복지센터, 주식회사 조은기업 등이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 받았다.

이들 치매극복 선도기관 및 단체들은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사천시'를 위해 앞으로도 치매인식 개선은 물론 치매 극복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치매극복 선도단체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사천시치매안심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강영훈/기자

거창군새마을부녀회 '홀몸노인 사랑잇기 운동' 펼쳐

거창군새마을부녀회는 지난 6일 거창군새마을회관에서 '행복한 동행! 홀몸노인 사랑잇기 운동' 봉사대 발대식을 갖고 관내 홀몸노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거창군새마을가족이 홀몸노인 등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이웃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 새마을부녀회는 지정된 취약세대를 방문해 달걀 한 판씩을 전달했으며, 어르신 60세대에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미숫가루를 만들어 전달하는 등 정신적·물리적 도움으로 가족의 훈훈한 사랑을 전달함과 동시에 어르신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임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를 주관한 신영애 거창군새마을부녀회장은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행복한 거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새마을부녀회는 하반기에도 생명의 샛강 살리기 운동, 다문화가족과 함께 송편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군민들에게 지역·이웃사랑을 전달할 계획이다.

장병철/기자

도내 4개 시군 호우경보 발효에 따른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

전북도에 따르면 7일 8시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7일 9시 40분부터는 4개 지역(무주, 진안, 정읍, 임실)에 호우경보로 격상된 가운데 도내 평균 115.2mm가 내렸다.

특히, 무주군에 149.5mm, 전주시에 147.6mm가 내렸으며, 기상청에서는 장마 전선 영향으로 8일까지 전북지역에 50 ~ 100mm(많은곳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도에서는 호우특보 상황에 따라 7일 9시 4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여 시·군과 함께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은 현재까지 총 238건(7.5 ~ 7일 까지)이며 익산시 중앙, 매일시장 내 상가 200동과 일반 건물 6건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고창과 부안의 7개 농가에서 3.1ha(벼 1.2, 콩 1.5, 수박 0.4)의 농경지도 침수피해 발생으로 피해조사 및 복구가 진행 중이다.

추가로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산45 마을도로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내 토사유출이 발생하여 도로를 통제하고 신속히 복구를 완료하였고, 추가로 무주군 안성면 일원 3개소에서도 사면붕괴가 발생해 복구 진행 중이다.

또한, 7일 08시부로 무주군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어, 산사태위험지역과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마을방송 등 홍보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군에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7일 10시 현재 10개 시·군 호우주의보, 4개 시·군 경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7일 10시 행정부지사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고, 7일 11시 유관기관을 소집하여 비상 2단계 회의를 진행하여 기관별 안전조치를 당부하였다.

주요 통제상황으로는 국립공원 등 도내 12개소 전체 탐방로 130개 노선 중 74개 노선이 통제 중이고,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 둔치주차장 6개 시군의 8개소 출입 통제, 인명피해우려지역 30개소 및 야영장 5개소 등이 접근통제 중이다.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임야 등 외딴곳에 홀로 거주중인 어르신이 있는 경우 읍면동과 협력하여 현황 관리하고, 집중호우 및 피해 발생 우려 시 사전대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밝혔다

김송일/기자

부안군, 원클릭 '보조금24' 서비스 제공

정부24 홈페이지 개인정보 입력 중앙부처 혜택 305종 한 번에 확인·신청

부안군은 정부24 로그인만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보조금24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305종의 정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각종 보조금 및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야·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행정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24 접속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 방문만으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을 한 번에 확인·신청 가능해 민원인의 편익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이용방법은 PC에서 정부24에 접속하거나 모바일로 '정부24' 앱을 이용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구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현재 해당 시스템을 통해 맞춤 안내하는 수혜서비스는 34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305종(가정양육수당,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이며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맞춤 안내되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24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본인이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완주군, 사업체 크게 늘어나고 지역경제 체력도 강화됐다

완주통계연보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사업체 22.5% 급증,

완주군의 각종 사업체 수가 최근 5년 동안에 20% 이상 급증한 가운데 개인보다 법인사업체 증가율이 크게 웃도는 등 지역경제 체력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완주군이 발표한 '완주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 5,982개에 불과했던 제조업과 도소매 서비스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 각종 사업체 수는 이듬해에 6천300여 개로 늘어났으며, 3년 뒤에는 7천개를 돌파한 후 2019년에는 7,331개로 불어나는 등 5년 동안 22.5%나 급증했다.

매년 각종 사업체가 평균 4.5%씩 늘어난 셈인데,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집중, 지역 내 청년창업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로 풀이된다.

조직 형태별로는 회사 법인이 856개에서 1,130개로 지난 5년 동안 32.0% 늘어나는 등 전체 증가율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 증가와 함께 경제체질도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사업체는 같은 기간 중에 4,272개에서 5,218개로 평균 수준인 2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산업별로도 제조업체가 802개에서 993개로 23.8%(191개) 증가해 전체 평균치를 웃돌았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63개에서 126개로 지난 5년 새 100% 격증하기도 했다. 도소매 서비스업 역시 1,400개에서 1,727개로 23.3% 늘었으며, 건설업(38.4%)과 숙박·음식업(29.4%)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총 4만5,675명에서 5만3,219명으로 늘었지만 증가율(16.5%)만 놓고 보면 사업체(22.5%)보다 밑돌았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1만9천여 명에서 2만1천여 명으로 늘어난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는 2천여 명에서 3천800여 명으로 무려 88% 이상 신장되는 등 고용구조의 변화를 나타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1~10인의 소규모 사업체가 5,388개에서 6,591개로 지난 5년 새 22.3% 늘어나는 등 풀뿌리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100인 이상의 중·대기업 수도 같은 기간 중에 52개에서 60개로 증가했으며, 특히 이들 중·대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2019년 말 기준 시 1만9천500여 명을 기록해 전체의 38.6%를 차지했다.

김광수/기자

전라북도, 세계 최초 해상풍력 일괄 설치 선박 진수식 개최

전북도는 7월 7일 군산항 6부두(GCT)에서 우범기 정무부지사, 정승일 한국전력공사장, 강임준 군산시장,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장, 김규선 티에지중공업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MMB)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MMB)은 한국전력연구원에서 총 사업비 340억, 공사기간 60개월이 소요되어 건조되었다.

총 중량은 4,060톤(전장 72m, 폭 45m, 높이 5m)으로 5MW급 해상풍력(1,500톤) 석션버킷 방식의 풍력발전기 1기를 한번에 운송하여 설치가 가능 하도록 특수제작된 다목적 일괄 설치선이다.

해상풍력발전기는 하부의 지지구조물과 상부의 풍력터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지구조물의 형태는 해저면에 파일을 박는 고정식과 부유체를 바다 위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뉜다.

부유식은 깊은 바다에 적합하고 설치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 연안에서는 주로 항타 장비를 이용한 고정식 공법을 주로 사용한다.

고정식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잘 알려진 석션버킷 공법은 펌프를 이용하여 내외부 수압차이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무진동, 무소음, 부유 퇴적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석션버킷 공법의 해상풍력 발전기는 군산 남방파제 앞 3MW급 해상풍력발전기(1기)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7호기)에 설치되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건조된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은 석션버킷 구조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운송하는 전용선이다.

기존 고정식 자켓 구조의 해상풍력발전기(5MW급/1기)는 일반 해상운반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설치비용은 86억원, 공사기간은 부분품(하부구조물, 타워 등) 분할 운송과 해상조립을 포함해 90일이 소요된다.

반면, 석션버킷 구조의 풍력발전기(5MW/1기) 일괄 설치선 이용시 설치비용 49억원, 공사기간은 10일로 37억원의 설치비 절감과 80일의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어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 향후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전북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전북지역 풍력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 진수식을 기점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혁신적인 토대를 이루어 전북이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남원시, 올 여름은 가족과 함께 남원 항공우주천문대로 오세요 !

새롭게 탈바꿈된 남원항공우주천문대가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어 남원시가 올 여름 관광지로 남원항공우주천문대를 적극 추천했다.

천문대측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VR체험기기 등으로 재무장한 남원항공우주천문대는 개관 세 달여 만에 10,000여명의 방문자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리산 정령치에서 출발하여 남원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 광한루원에 안착하는'패러글라이딩VR'체험과 영화 속 아이언맨이 되어 하늘을 나는'플라잉젯VR','자이로VR'체험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게다가 4D영화 관람과 태양 및 천체 관측 등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남원항공우주천문대는 최근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해 7월부터 천문대 최초로 '연간 가족회원제'를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연간 가족회원제는 연 5만원을 내면, 가족 모두가 1년 동안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7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특히 천문대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남원 시민 관람료 50% 감면과 기존 동절기 관람시간도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연장 운영하기로 해 앞으로 남원시민과 천문대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관람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정읍시,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정읍시가 7일 정읍 지역에 최고 152mm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피해 우려 지역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정읍 지역에는 지난 6일부터 7일 오전까지 평균 72.3mm, 최고 152mm의 많은 비가 내리며 호우경보와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유진섭 시장은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소집해 재해 대비 태세 구축과 홍수피해 예방에 모든 행정력 집중을 지시하고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장마로 인한 피해 지역 점검과 추가 재해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유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시설이 일부 소실된 칠보면 은석천 현장과 물 수위가 높아진 축현천 현장을 방문해 직접 물 수위를 확인하고 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침수로 피해를 입은 칠보면 무성리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

유 시장은 시 관계자들에게 피해 주택의 응급 복구 등 사후 조치와 수위상승으로 인한 시설물 유실 붕괴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지시했다.

또 기습적 폭우에 대비해 비닐하우스와 가축 시설, 농작물 등에 대한 시설물을 재차 확인하고 수시로 예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비상 연락체계 가동점검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보고 등 주요 사전 조치사항을 중점 점검토록 지시했다.

시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과 읍·면·동 담당 직원의 비상근무와 실시간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호우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주요 사업장 95개소와 지하차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지난달 사전점검을 마치고, 사업장 내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또 침수 우려 지역과 토사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보강작업을 추진하고, 배수펌프장과 지하차도 등 배수시설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마을 방송과 재난 예·경보 시설 등을 활용해 시민 대응 요령 등 홍보를 강화해 시민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다" 며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장성군, 민선7기 3주년 정례조회… '특별한 소통의 시간'

유두석 군수 "군민 안전 최우선… 거버넌스 힘으로 새로운 장성 만들겠다"

장성군이 5일 오전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민선7기 3주년을 기념해 군 공직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7월 정례조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상 송출을 통한 질의에 유두석 장성군수가 현장에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목을 끌었다.

개회 선언과 군정 발전 유공자 시상 등의 식순에 이어 본 순서가 시작되자 행사장을 찾은 200여 공직자들의 시선이 무대 위로 집중됐다.

강단에 선 유두석 장성군수는 서두에서 "코로나 시대인 지금은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고 뜨겁다"면서 "장성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정의 최우선 원칙을 '군민 안전'으로 정하고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성의 미래 변화에 대해 유두석 군수는 "삭막하던 고려시멘트 앞 도로를 쾌적하게 넓히고 붕괴위험지역이었던 장성공원에 경관폭포를 설치하는 등 그간 장성군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켰다"고 돌아보고 "청운지하차도를 성공적으로 개설해 군민 안전을 지키고 동·서부간 균형 발전을 이루겠으며 ▲하이패스IC 신설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모델 구상으로 장성의 미래 지도를 바꾸겠다"고 답했다.

농업·유통 분야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남면로컬푸드직매장이 4년 만에 매출이 12배나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면서 "150만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이 문을 열면 보다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군수는 "군(軍)급식로컬푸드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농업·유통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유두석 군수는 ▲황룡강 취암천을 직강화해 수해를 막고 부지를 확보한 장성공설운동장(옐로우시티 스타디움) 건립 매듭 ▲장성호 수변백리길 조성 및 복합리조트 조성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90억원)을 통해 황룡강 르네상스를 이어가는 한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조기 추진 ▲국비 350억원 규모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설립 ▲필암서원 세계화 사업(3년간 100억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언의 말미에서 유두석 장성군수는 "거버넌스(민관합치)의 힘을 바탕으로 군민, 공직자와 함께 더 큰 장성, 더 자랑스러운 장성을 넘어 '새로운 장성'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해 청중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오홍곤/기자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피해복구에 역량 총동원"

6일 집중호우 피해사항 긴급 점검회의…광양 매몰 현장도 살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실국장,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사항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도록 도와 시군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3일부터 올여름 늦은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22개 모든 시군에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남해안지역에 최대 5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으며, 해남 북일·현산, 장흥 관산, 강진 마량에 시간당 70mm 이상의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해남과 광양에서 각 1명씩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밖에 일시 대피자 47명, 농경지 침수 1만 4천841ha, 주택침수 130동, 축사 침수 42동 등 피해가 집계됐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대본 비상근무를 3단계로 격상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산사태·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면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하천범람 등에 대비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점검회의에서 "도로, 주택, 농경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에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경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우선 복구해야 한다"며 "가옥이 잠기거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도민이 식사와 잠자리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보살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집중호우로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라며 "산사태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등 저지대 재해 취약지 주민은 이상 징후를 잘 살펴 마을회관 등 지정된 장소로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광양 진상면 산사태에 따른 주택 매몰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호우로 발생한 인명피해를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재난지원금 등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안/기자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매력적인 강진 만들기' 세미나 개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지난 6월 30일 전남음악창작소에서 강진군의 효율적인 관광마케팅 전략 모색을 위한 '2021 강진군 문화관광 마케팅 세미나' 행사를 강진군내 관광업계 종사자, 공무원, 상인연합회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관광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여가트렌드에 맞는 강진의 관광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김바다 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에 이어 한국창업마케팅사관학교 나연재 대표의 '온라인 마케팅 실무 전략', 한국관광정보센터 허갑중 소장의 '강진군 관광·방문 안내 정보 혁신 방안', 놀고먹기연구소 이우석 소장의 '우리 강진의 매력 어디에 어떻게 알릴까?'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 상인연합회원 A씨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학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발맞추어 관광콘텐츠 발굴·개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 강진군이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지역으로 성장하여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장길/기자

여수시 화양면에 국내 최대 체험형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

아름다운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여수에 국내 최대 규모인 체험형 테마파크 관광단지가 조성된다.

시에 따르면 여수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착공식이 6일 오후 3시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여수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윤중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김회재 국회의원과 여수시, 여수시의회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챌린지파크관광㈜는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51만㎡ 부지에 2025년까지 2천300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풀빌라, 루지를 비롯한 체험과 휴양을 테마로 한 복합레저시설을 조성한다.

루지는 2개 트랙, 총 연장 2㎞ 코스로 타 지역의 루지와는 차별화 된 규모로 울창한 숲 속에서 확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달릴 수 있다. 해상 짚와이어, 스카이 클라우드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세계 최고 수준의 호텔이 건립된다.

현재 도로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장마가 끝나는 오는 8월 루지시설을 착공하고 12월에는 숙박시설인 호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6천600여 명의 고용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체험형 해양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험과 휴양을 테마로 조성될 여수챌린지파크 관광단지는 여수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로 끊임없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집중호우 수해 취약지역 점검

김순호 구례군수가 7월 6일 오전 관내 수해 취약 지역을 방문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7월 6일 오전 10시 기준 구례군 일대 150mm 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한 가운데, 구문척교에서 상승한 섬진강 수위를 확인하고, 양정 배수펌프장 시설 가동 상태를 점검하였다.

이어, 지난해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다가 임시 복구가 완료된 서시천 제방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작년 8월 8일 섬진강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던 양정마을을 방문하여, 밤새 많은 비로 인해 가슴 졸이던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한편, 7월 6일에는 구례군의회 282회 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의사일정을 미루고,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현장방문에 동참하였다.

최상홍/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 코로나 극복 세종시 버스정류장 광고 무료 지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세종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무료 광고 지원사업 '희망광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교통공사가 추진하는 '희망광고'는 세종시 버스정류장 옥외 광고매체에 3개월 동안 무료로 광고를 실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세종시 관내 착한가격업소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업소이다.

다만, 약국, 의원, 유흥업소, 대기업 직영점 등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소는 희망광고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교통공사는 오는 7월 27일까지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 대상 업소의 신청을 받은 다음 선착순으로 30개 업소를 선정하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세종시 버스정류장 옥외광고면에 선정된 소상공인 업소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희망광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업소는 오는 7월 27일까지 세종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응모 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이번 '희망광고'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희망광고' 사업처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헌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역을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광고홍보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최재은/기자

당진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인문학강의 사전예약중!

20일부터 「김대건 신부 클라스」개최, 5일부터 사전예약

당진시가 오는 20일부터 4일간 시청 당진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관련 인문학 강의인 「김대건 신부 클라스」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4가지 주제로 4인 4색의 강사와 함께하며, 주제는 다음과 같다.

7월 20일에는 박지훈 여행 도슨트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바티칸을 만나다'이며, 21일은 안지영 인문공방 대표의 '시대를 앞서간 청년, 김대건 신부를 찾아 떠나는 랜선순례', 22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한국 문화와 역사 홍보, 왜 홍보해야 하나(조선선도가 증명한 우리땅 독도)'에 이어, 23일 최태성 한국사 강사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으로 막을 내린다.

시에 따르면 현장 참여방법은 5일부터 '당진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300명만 참여가 가능해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단, 현장 참여인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변동 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참여방법은 유튜브 검색창에 '김대건 신부 채널' 구독 후 '김대건 신부 클라스'를 접속하면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장창순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은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는 대한민국 최초 사제라는 의미를 넘어 19세기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던 시대적 인물이다"라며 "김대건 신부의 다양한 업적을 이번 인문학 강의를 통해 더욱 폭넓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당진 우강 솔뫼성지 일원에서 200주년 기념식, 남북평화의 날, 기후위기와 감염병 종식 기원행사, 오페라 칸타타, 국제학술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강릉시, 지역사회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ICT 활용형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모집

강릉시에서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이용한 공공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사업 참여자마다 맞춤형 건강 생활목표를 설정해준 다음, 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 등 전문인력 5인이 대상자의 올바른 생활 습관 교정을 위한 영양·운동·건강 상담을 24주간 진행하는 종합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19세 이상의 강릉 시민으로, 혈압·혈당·허리둘레·중성지방·HDL 콜레스테롤 중 1가지 이상의 건강문제요소를 가진 시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건강검진 후 의사 상담을 통해 서비스 참여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2022년도 상반기 대상자를 연중 계속 모집 중이므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강릉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성덕포남로 80-22) 방문 또는 유선(660-2482)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017년도 1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까지 총 1,071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였다.

강릉시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주민들의 건강증진 동기를 이끌어,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생활 습관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금산군, 상반기 특별교부세 등 49억 원 확보

국·도비 예산 확보로 지역현안사업 탄력 전망

금산군은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49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장애인체육센터 조성 10억 원 △금산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4억 원 △호티천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 7억 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 지원 1억 원 등 8개 사업에 총 23억 원이다.

충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금산읍 수남지역 보건진료소 신축 7억 원 등 총 5개 사업에 26억 원 확보했다.

특히 금산장애인체육센터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통해 총사업비 111억 원(국비 30억 원, 군비 81억 원)을 확보해 관내 열악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체육시설을 2023년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산읍 수남지역 보건소 건립은 보건·의료기관이 부족한 금산읍 수남지역에 군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진료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금산군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금산 군민들에게 더욱 안정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서천군, 2021년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완료

서천군은 서천 치유의 숲 어린이숲 지구에 자라나는 유아·청소년들을 위한 숲 체험 활동시설인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완료했다.

서천 치유의 숲은 수변 경관과 소나무 숲 공간이 공존하는 특색 있는 산림치유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산책과 명상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숲을 이용한 심리적·정신적 건강 회복 활동을 위한 국민의 힐링장소로 호응을 얻고 있으나,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하도록 지도·교육하는 장소로,

숲 체험은 유아들에게 사회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길러주며 창의성, 집중력, 탐구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서천군 유아숲 체험원은 1만㎡ 공간에 트리하우스, 짚라인, 한글모임, 오소리동굴, 나무암벽타기 등 놀이체험 시설과 숲대피소, 시설안전표지판 등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3월 사업을 시작해 6월 말 사업을 완료했다.

정상운영은 내년 3월부터로 전문가인 유아숲지도사를 현장 배치해 유아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나, 트리하우스 등 시설은 7월 중순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고정화/기자

태안소방서, 카카오톡앱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가 가능하다고요?

태안소방서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군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카카오톡(채널) 앱을 통해'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이는 소방시설 등 불량사항에 대한 민원신고를 기존에 전화, 우편, FAX, 소방서 방문 접수 등 다소 번거로운 방법으로 접수했다면, 앞으로는 카카오톡(채널),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고의 편리성을 높여 군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신고자가 카카오톡(채널) 앱으로 소방시설 불량사항의 장소,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소방공무원 현장확인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카카오톡 앱으로 조치결과를 통보받는 형식으로 신고가 진행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이며 ▲피난 · 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 ·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피난 ·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유병찬 대응예방과장은 "앞으로 카카오톡(채널) 앱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가 간편해짐에 따라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횡성 은가람광장 어린이 물놀이장 7월 9일 개장

횡성군은 오는 9일, 횡성문화체육공원 내에 조성한 은가람광장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은가람광장 어린이 물놀이장은『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1,000㎡ 면적에 종합놀이대를 포함한 8종 35개의 시설물과 광장 바닥분수와 휴게 공간(데크쉼터, 야외파라솔)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 기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8월 말까지 무료로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횡성군민(12세 이하 어린이/ 3세 이하는 보호자 동반)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장 가능 인원은 약 200명으로 제한하고 취식을 금지하는 등 코로나 방역수칙 또한 철저히 준수해 운영한다.

한편, 개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이뤄지며, 오후 3시에는 장신상 군수, 권순근 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사업 추진위원회 민간인 감사패 전달 등 개장식이 열릴 예정이다.

장신상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무더운 여름 작은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횡성에 걸맞은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여름, 아이들이 이곳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길 바란다. "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솔선수범한 '모범 공무원' 선발

광주 남구는 6일 "구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 절감을 비롯해 적극 행정을 통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 등에 기여한 직원 3명을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 공무원에 선정된 주인공 3명은 회계과 안창정 주무관과 청소행정과 장길환 주무관, 양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승엽 주무관이다.

공사계약 업무 담당자인 안창정 주무관은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해 수의계약, 조달구매, 입찰 등 수백여 건에 달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정밀한 검토를 실시해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지역 업체에 균등한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각종 사업을 원활히 진행해 왔다.

또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와 계약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조언자 역할을 수행해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장길환 주무관은 재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원 순환 및 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환경 보존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광주·전남 지자체 최초로 대형폐기물 무인 접수기를 설치해 주민들이 주말과 휴일, 야간에도 자유롭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했고,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에서부터 처리까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율을 높인 공로로 모범 공무원에 선발됐다.

이승엽 주무관은 양림동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공무원으로, 헌신적인 업무 태도 및 투철한 사명감으로 복무해 모범 공무원에 선정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함께 3·1만세 운동 태동지 거리 조성 등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림동만의 특색을 살린 마을을 조성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업무도 도맡아 평일과 주말에도 열성적으로 근무해 모범 공무원을 수상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적극행정 활성화와 구정 발전을 위해 모범 공무원 선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고양시, 명재성 제14대 고양시 덕양구청장 취임

"존경하고 사랑하는 48만 덕양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4대 덕양구청장으로 취임하게 된 명재성입니다"

신임 명재성 제14대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지난 7월 5일 공식 취임했다.

명 구청장은 1983년 공직에 입문해 2012년 4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국제통상과장, 인적자원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7년 7월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미래전략국장, 도서관센터소장, 복지여성국장, 제10대 일산서구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뒤 올해 덕양구청장 직을 맡게 된 그는, 특히 일산서구청장 시절 특유의 친화력과 소통 능력으로 현장 최일선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히며 덕양구의 발전을 견인할 적임자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취임 첫날 공식 일정으로 장마철 수해 대비 관내 대장 펌프장 및 대내로 펌프장 등을 현장 방문하며 취임식을 갈음한 명 구청장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배수시설과 장마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한편 "덕양구의 일원으로서 구민여러분과 직원여러분을 만나게 돼 기쁘고 영광이다"라며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있는 현 시점에 취임하게 돼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며 "무엇보다 덕양구가 지리적·제도적으로 고양시 타 지역에 비교해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나, 제3기 창릉신도시 건설,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 성사혁신지구 사업, 대곡역세권 개발, 국가철도교통망 노선 반영 확정 등 무한한 잠재력이 내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밀접분야 환경 정비 및 재난대책 시스템 운영,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사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코로나19 등 각종 위기상황 속 긴급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등 특례시 출범을 앞둔 고양시의 주축이 될 '안전하고 깨끗한 덕양구'를 만들기 위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어 "위의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민의 소통·공감·화합이 필요하다"며 "현안에 대한 열린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토론하며 구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덕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영기/기자

세종 장애인 역도 신예 천민기, 전국대회 우승

제20회 전국장애인역도선수권 대회 첫 출전…종합 우승 차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회장 이춘희)는 역도 대표 천민기 선수(만17세·세종누리학교)가 지난 6월 30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천 선수는 전국대회에 처음 출전해 파워리프트 1위(85kg), 웨이트리프트 2위(80kg)를 차지하며, 종합 1위(165kg)의 성적으로 시상대에 올랐다.

천 선수의 이번 우승은 학생신분으로 출전하는 첫 성인대회였다는 점에서 장애인 역도계의 떠오르는 신예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천 선수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장애인체육회의 '신인선수 육성사업'대상자로 선정돼 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세종시를 대표하는 역도 간판선수로 성장했다.

또한, 올해 대한장애인역도연맹 우수선수로 선발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한 선수로의 성장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춘희 장애인체육회장은 "천 선수를 발굴해 좋은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게 노력한 장애인체육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신인 선수들이 체육을 통해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거창군 남하면, 제32대 박달호 남하면장 취임

취임사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현장 행정 펼칠 것" 각오 밝혀

거창군 남하면은 지난 5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강철우 경남도의원, 권재경·이재운·심재수·표주숙 군의원, 이장·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대 박달호 남하면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거창군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남하면장으로 취임하게 된 박달호 면장은 2020년 1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건설과장을 거쳐 이번에 남하면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박달호 신임면장은 1992년 5월 29일 첫 공직에 발을 디딘 후 토목기술직 보직을 두루 거친 기술행정의 전문가로서 취임사에서 "면민들과 항상 가깝게 소통하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거창군 토목직 후배 공무원들도 다수 참석하여 남하면장으로 첫 출발을 축하했으며, 취임 첫날 박달호 면장은 관내 주요 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면정을 시작했다.

장병철/기자

강대석 제28대 중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제28대 강대석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이 5일 인사발령을 받고 대전, 세종, 충남·북도 국유림 13만ha를 총괄 관리하는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강대석 청장은 강원 춘천 출신으로 1990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산림청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고, 국유림경영과장,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하는 등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한, 성품이 온화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솔직한 화법으로 직원들과의 신뢰가 있고 소통도 잘되는 등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잘 알려졌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림현장에서의 맞춤형 정책실현에 노력하겠다."면서 "당면 현안으로는 여름철 산림재해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2021 포스트인 의정부문 수상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이 2021 포스트인 상을 수상했다.

서산시의회는 6일 서산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서산포스트신문 창간 3주년 기념식에서 이경화 의원이 2021 포스트인 의정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경화 의원은 지난 해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에 관한 사항을 법규명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깊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기간 내내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이경화 의원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산시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먼저 살피고 돌아보는 섬세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사진설명1: 서산포스트신문 창간 3주년 기념식에서 이경화 의원이 2021 포스트인 의정부문을 수상했다.

고정화/기자

거창군 위천면, 제37대 이동복 위천면장 취임

창군 위천면은 지난 5일 위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강철우 도의원, 심재수·권순모 의원, 기관단체장, 각 마을 이장, 주민,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대 이동복 위천면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동복 위천면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군 대표적인 관광지인 위천의 명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실천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동복 위천면장은 1989년 7월 31일 첫 공직에 발을 내디딘 후 본청과 읍·면 등 주요 요직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소통능력으로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위천면장으로 취임했다.

장병철/기자

곡성군 제26대 이상진 부군수 취임, 문턱 없는 소통 강조

곡성군에서는 지난 2일 곡성군 제26대 부군수에 이상진(47) 전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상진 신임 부군수는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실과소 및 읍면별 순회 인사와 기관 방문으로 취임 인사를 대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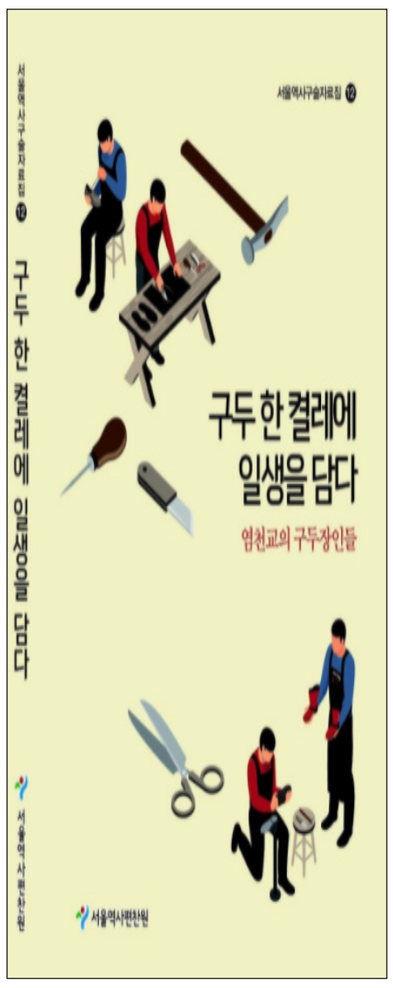
이 부군수는"곡성군에서 일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 영위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에 임하겠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다.

또한 부군수실에 문턱이 없음을 강조하며 "언제든지 누구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으며 군정 발전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을 같이 찾아가자."라면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부군수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목포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행정고시 51회를 통해 2008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및 정책개발팀장, 에너지신산업과장, 국제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이남출.최상홍/기자

서울시 염천교 구두장인들의 일과 삶 담은 '구두 한 켤레에 일생을 담다' 발간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은 염천교 구두장인들의 일과 삶을 구술로 풀어낸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12권 '구두 한 켤레에 일생을 담다 -염천교의 구두장인들'을 발간하였다.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2009년부터 서울시민들에게 현대 서울의 생생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구술채록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11권의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제12권 '구두 한 켤레에 일생을 담다'에서는 중구 의주로2가에 위치해 있는 염천교 수제화거리 구두장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채록, 정리하였다.

이 책은 염천교 일대를 무대로 활동한 구두장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구두일을 어떻게 배웠는지, 당시 서울의 제화산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것에 있어 염천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본 구술자료집은 염천교에서 활동한 구두장인 10명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들은 대부분 10대 중후반부터 구두일을 시작했다. 시기별로 보면 빠른 경우 6·25전쟁 이전부터, 늦어도 1970년대부터 제화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들려주는 견습생 시절 구두일을 배우는 모습이나 당시 구두공장의 풍경, 기술자들의 근무문화는 그 시절 서울 중소공장에서의 일상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귀중한 증언이다.

1960~19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두 수요도 증가했다. 염천교는 밤낮없이 바쁘게 일했다고 한다. 또한 1980년대부터는 지방의 구두상점들이 이곳으로 올라와 기성화를 도매로 납품받았다. 염천교는 도매상들의 주요 거래처가 되었다. 이 책의 구술자들도 당시 전국으로 팔리는 구두 중 상당수는 염천교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그 시절을 염천교의 '전성기'로 기억한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홈쇼핑이 등장하면서 유통 구조가 급변하기 시작했고,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들어와 시장을 잠식했다. 이 책의 염천교 구두장인들도 이 무렵부터 구두산업이 침체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제화와 특수화 분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많은 양의 공장식 기성화를 생산하던 체제에서 수작업을 통한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내놓는 방식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가의 중국산 기성화가 충족시킬 수 없는 수제화만의 견고함과 마감, 소비자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구두, 그리고 댄스화와 같은 특수화 분야의 개척을 강조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서울의 역동성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가죽을 재단하고 박음질하며, 창을 깎아서 오려내고, 그렇게 한땀 한땀 구두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장인들의 일과 삶이 녹아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일과 삶은 서울 중소상공업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 장인들이 만든 한 켤레의 구두 속에도 서울의 바뀌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염천교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작지만 중요한 서울의 중소상공업과 일상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이 책에 담겨 있는 장인들의 일과 삶을 통해 20세기 서울 중소상공업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서울역사구술자료집은 제12권 '구두 한 켤레에 일생을 담다 -염천교의 구두장인들'은 서울 주요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청 지하 1층의 시민청에 있는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도서 구입은 서울책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8월부터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온라인 서비스 될 예정이다.

현유주/기자

국립고궁박물관, '안녕, 모란' 특별전 개최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은 오는 7일~10월 31일까지 모란꽃을 매개로 조선 왕실 문화를 살펴보는 특별전 '안녕, 모란'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모란도 병풍을 비롯해 궁궐의 그릇, 가구, 의복 등 각종 생활용품과 의례 용품에 즐겨 장식되던 모란꽃을 담은 여러 유물 120여 점이 대거 공개되며, 모란이 수 놓인 창덕궁 왕실 혼례복이 처음 공개된다.

특히, 창덕궁 낙선재에서 포집한 모란향으로 제작한 꽃향기가 전시공간에 퍼지도록 하고, 빗소리와 새 소리 등 정원에서 들을 수 있는 생생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해 한결 생생한 감상의 공간이 되도록 꾸몄다.

전시는 ▲ 1부 '가꾸고 즐기다' ▲ 2부 '무늬로 피어나다' ▲ 3부 '왕실의 안녕과 나라의 번영을 빌다' 등 3부로 구성해, 모란이라는 식물과 그 무늬를 조선 왕실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즐겼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떠한 상징이 담겼는지를 집중 조명했다.

먼저 ▲ 1부 '가꾸고 즐기다'에서는 모란이라는 식물을 가꾸고 감상하며 그림으로 그려 즐기던 전통을 살펴보았다.

전시실은 영상과 조경물로 연출된 정원 형태로 꾸몄다.

관람객은 올봄 창덕궁 낙선재 화계(계단식 화단)에 핀 모란에서 포집해 제작한 향을 맡으며, 빗소리, 새의 지저귐이 어우러진 정원에서 18~19세기의 대표적 모란 그림인 허련(1808~1832), 남계우(1881~1890)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2부 '무늬로 피어나다'는 조선 왕실 생활공간을 장식한 무늬로서의 모란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다.

무늬는 장식적 기능과 함께 특정한 상징을 담는 기호이기도 하다.

왕실에서는 부귀영화의 상징인 모란을 각종 생활용품에 무늬로 사용하면서, 풍요와 영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나전 가구, 화각함, 청화 백자, 자수 물품 등 다양한 유물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란 무늬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혼례복이나 가마와 같은 왕실 혼례이다.

총 2벌의 혼례복 중 한 벌은 복온공주(순조의 둘째 딸, 1818~1832)가 혼례 때 입은 것인데, 남아 있는 활옷 중 제작 시기와 착용자가 명확한 유일한 것이다.

나머지 한 벌은 창덕궁에서 전해 내려오는 활옷인데 재미있는 것은 보존처리 중에 옷 속에서 발견한 종이심이다.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어 옷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한 이 종이심이 살펴본 바 1880년 과거시험 답안지를 재활용한 종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창덕궁 활옷은 이번 전시에서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

2부는 종류와 구성이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는 것을 고려해,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고 그사이에 유리 벽면을 설치해 연속성과 단절성을 함께 살렸다.

전면부는 방 형태로 공간을 구성하고, 창덕궁 낙선재 문살 장식을 활용해 벽면을 연출하고 천장에서 새어 나오는 따뜻한 조명 아래 유물을 배치했다.

혼례 용품이 있는 부분은 주변에 삼베를 길게 늘어뜨린 후 혼례복의 다양한 꽃무늬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연출해 활옷 무늬에 담긴 각종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관람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 3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빌다'는 왕실의 흉례와 조상을 모시는 의례에 사용된 모란을 조명했다.

흉례의 절차마다 모란 무늬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각종 의궤, 교의, 신주 신여(가마), 향로와 모란도 병풍을 통해 소개했다.

3부의 중심 유물은 단연 모란도 병풍이다.

흉례의 전 과정에 모란도 병풍을 사용한 것은 왕실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다.

전시장 3면을 모두 모란도 병풍으로 둘렀으며, 관람객이 병풍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유물과 유리면 사이 거리를 좁혔다.

3부 마지막 부분에는 왕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선원전을 연상시키는 공간을 조성해 모란도 병풍과 향로, 교의, 의궤를 함께 전시해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의례와 모란의 관계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관람을 위해서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현장 접수도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과 현장 접수를 합해 시간당 100명, 일일 최대 1천 명까지 개인 관람으로만 입장이 가능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 여부 점검, 한 방향 관람 등을 지켜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안녕, 모란' 특별전에 조선 왕실에서 모란을 사랑했던 마음을 정성껏 담아 전례 없는 전염병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탈 없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되찾길 기원한다.

전순희/기자

경상남도, 황금빛 색채화가 '클림트'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다!

경상남도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도민을 찾아온다고 밝혔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제2전시실에서 '황금빛 색채화가 클림트 레플리카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클림트의 대표 작품 '키스', '베토벤 프리즈', '생명의 나무'를 포함하여, 스케치 작품 등 40여 점을 레플리카로 만나볼 수 있다.

클림트는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고전 양식을 타파하고, 파격적인 기법과 소재를 다루면서, '빈 분리파'라는 새로운 미술단체를 결성하여 오스트리아 미술계를 이끌었다.

그는 모자이크 양식과 아르누보 장식성을 화폭에 대입,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켰으며, 우아한 에로티시즘과 강렬할 상징주의로 자신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1918년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는 2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고,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시대를 앞서가는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2021년 기획 전시로, 클림트의 인생을 따라 떠나는 황금빛 전시 여행을 준비했다"라며, "화려한 색채와 시대를 반영한 독창적 화풍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도슨트의 전시해설(1일 3회 / 11시, 14시, 16시)을 비롯해 '나도 클림트'와 '매직큐브'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전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문화예술회관과 무진컴퍼니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2021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진행된다.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 유휴 전시공간의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민의 전시관람 기회를 통해 시각예술분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한편,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손소독과 발열확인,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네이버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경기아트센터 대표 브랜드공연〈브런치콘서트〉 올해로 10주년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의 대표 브랜드 공연 '브런치콘서트'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지난 4월 '클럽-M'의 무대에 이어, 7월의 브런치콘서트에서는 한국의 대표 목관 앙상블 '코리안아츠 윈드'가 목관악기 9중주의 완벽한 앙상블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청량한 사운드를 선사한다.

오전 11시, 여유로운 시간에 편안한 해설과 친숙한 클래식 프로그램으로 관객에게 다가갈 7월의 브런치콘서트는 7월 8일 오전 11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한 좌석 거리두기로 진행한다.

무대에 서는 '코리안아츠 윈드'는 한국의 대표 목관 앙상블로,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을 두 대씩 사용한 전통적 8중주 편성에 한 대의 플루트를 더한 9중주로, 오랜 전통을 넘어 실험적인 기획과 편성을 바탕으로한 그룹이다.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들과 목관악기 솔리스트들이 모여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7월 브런치콘서트의 주제는 '여름'이다. 코리안아츠 윈드는 이번 공연에서 멘델스존의 〈한 여름 밤의 꿈〉,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박쥐서곡〉,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모음곡〉 등 여름과 어울리는 친숙한 클래식 곡들을 선보인다.

공연관계자는 "2012년 〈립스틱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관객들을 만났던 경기아트센터 브런치 콘서트 시리즈에 10년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더운 여름의 열기를 날려줄 음악과 함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순희/기자

강릉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 '풍경, 바라보다'展을 오는 7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강릉아트센터 3전시실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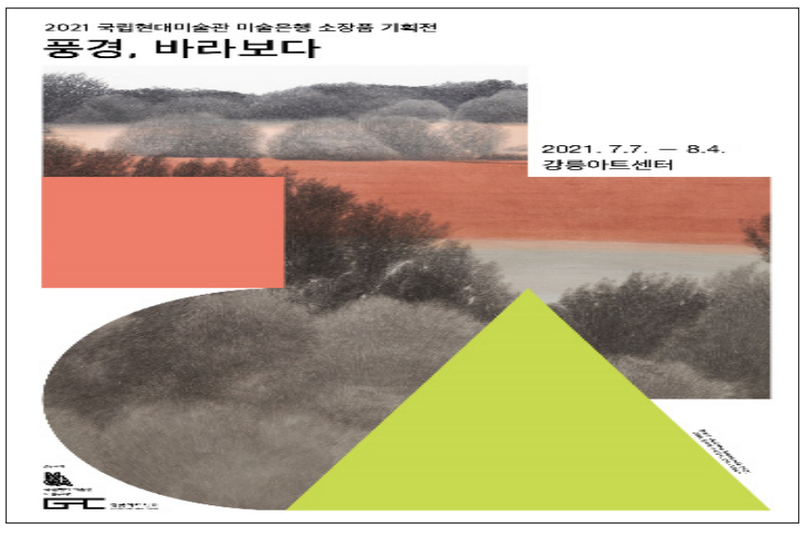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과 강릉아트센터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그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이 엄선하여 수집한 우수한 소장작품들로 회화, 사진, 뉴미디어 설치 등 총 16점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이 작품들은 풍경을 주제로 하여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과 자연을 관조하는 삶을 재조명해보고, 우리에게 익숙함과 동시에 낯선 모습으로 자연적인 풍경과 개인의 감정, 사고가 담긴 사색의 풍경을 보여준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강릉아트센터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철저한 방역 아래 안전한 전시 관람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며 전시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이고 관람료는 무료이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은 공공기관 및 기업, 해외 공관 등에 대여·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미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등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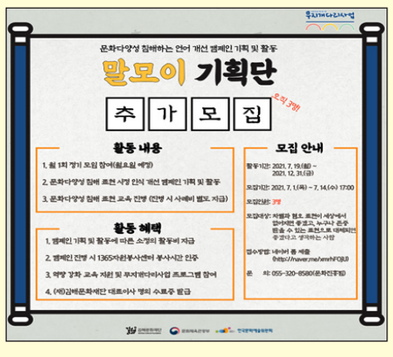
문화다양성 침해표현 시정 활동 '말모이 기획단' 모집

(재)김해문화재단은 2021 무지개다리사업 문화다양성 침해 표현 시정 활동을 펼칠 '말모이 기획단' 참가자를 오는 1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말모이 기획단'은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문화다양성 침해 표현 시정'말모이'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다양성을 침해하는 혐오와 차별 표현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기획하고 김해시 평등 언어 등의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올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의 활동 기간 중 월 1회 정기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혜택도 제공받는다. 캠페인 기획 및 활동 시 월 12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급과 자원봉사포털 1365에서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역량 강화 교육 지원, 활동 완료 시 수료증 발급도 가능하다.

한편 (재)김해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무지개다리사업에 선정된 8년차 주관기관으로서 지역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모이' 사업은 2019년부터 3년째 진행 중으로, 지난해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받기도 했다.



최광용/기자

바이오 창업기업! 인천 송도로 몰려온다.

1년 새 인천에 둥지를 튼 바이오 창업기업 48개사, 투자 유치 827억 원

인천광역시는 바이오 창업기업들이 인천 송도로 몰려들고 있다. 그만큼 투자 유치도 급증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도 인천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까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바이오 기업,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생기업까지 인천 송도로 입주하기 위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벤처캐피탈의 투자문의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인천에는 최근 2년 이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연이어 유치해 인천 스타트업 파크, 대학내 산학협력단지, ㈜르호봇의 송도바이오융복합센터가 문을 열었고 이와 동시에 수많은 바이오 창업 기업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철저한 선발과정을 통해 48개사의 바이오 창업기업을 지원한 결과 827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제일 먼저 개소한 인천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은 2019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한 공모사업으로 같은 해 7월 인천이 선정되어 4차 산업 기반 혁신기업 육성, 스타트업 기업 글로벌 진출, 민간 및 전용펀드 조성, 실증 기반의 협력 파트너 프로그램 발굴 등을 핵심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송도에 자리 잡아 운영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과 스마트시티 및 바이오융합산업 분야의 연계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 융합 분야는 53개 기업이 지원 신청해 37개사를 지원했고, 이중 17개 기업이 스타트업파크에 입주해 총 17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다음으로,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사업은 중기부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17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652.2억 원을 투자 유치했다.

중기부 주관 사업은 인천시 지원액인 1.7억 원을 포함한 9.3억 원을

투자해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2020년 이후 입주한 바이오 창업기업은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폴리텍2대학 내 8개 기업이며 2.2억 원을 투자 유치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사업은 인천시 지원액인 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8억 원을 투자해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과 기업이 상생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 6월 설립되어, 현재 바이오 벤처 9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총 6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서울의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94개의 벤처기업이 지난 4년 동안 받은 투자 총액이 1,49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놀랄만한 성과다.

2020년 11월 오픈한 (주)르호봇의 송도바이오융합센터는 바이오·헬스케어·푸드테크·코스매틱등 유망 신산업분야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과 글로벌 진출·판로개척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84개 기업 중 바이오 벤처기업은 14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입주기업에게는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시설 및 장비를 공유하는 바이오 실험실을 구축 제공하고, 글로벌 주요 바이오 인큐베이팅센터와 병원, 벤처캐피탈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바이오 헬스분야 및 융복합 산업분야를 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7개의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타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2개 기업이 향후 스타트업 파크로 입주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주)액트너랩, 더웰스인베스트먼트(주), 대성창업투자(주), 빅뱅엔젤스(주)가 인천의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1,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중 700억 원 이상을 인천 바이오 헬스 창업 육성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이렇게, 바이오 벤처기업과 투자자들이 송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인천시가 지난 3월중 2주간'K-바이오 랩허브'의 실수요자인 바이오 관련 기업의 정확한 수요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타트업 창업 시 인천 송도 'K-바이오 랩허브'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추천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84개사로 56.4%를 차지했고, 고려할 수 있다는 응답이 131개사로 40.2%, 없다는 답변이 11개사로 3.4%를 차지해, 인천 송도에 'K-바이오 랩허브'의 구축은 전국적인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그동안 업계에서 호소해 오던 전문 인력 문제를 ❶'바이오공정 전문인력양성센터' 유치로 매년 2,000여명의 전문 인력 양성 기반 마련을 통해 해결했으며, 수많은 벤처캐피탈의 집적지인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투자 입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외투기업 투자에 따른 혜택, 바이오 앵커기업과의 연계,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항과 항만 위치로 글로벌 시장진출 용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2백만 제곱미터 조성으로 확장 가능성 등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기업의 니즈에 필요한 요건이 맞춤형처럼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K-바이오 랩허브의 구축모델인 보스턴 랩센트럴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민간주도하에 자생적으로 성장한 도시이며, 인천시 또한 인천시가 마련한 토대 아래 민간주도로 바이오산업이 성장해 왔다"라며 "대표적인 기업이 셀트리온으로 인천이 갯벌을 육지로 바꾸어 조성한 토지아래 기반을 쌓고, 이제는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 됐듯이, 인천은 제2, 제3의 셀트리온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를 통해 바이오 벤처기업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치고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울산시, 행안부 마을기업 6개사 최종지정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1년 마을기업 심사' 결과 울산시가 추천한 6개(신규 2, 재지정 2, 고도화 2) 마을기업이 모두 지정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마을기업은 신규로 지정된 ㈜아로마팩토리 희로, ㈜간절곶배꽃마을과 재지정된 산마루자연체험협동조합, ㈜그린나래 그리고 고도화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씨앤트리(주), 까페꿈협동조합 등 모두 6곳이다.

동구 전하동에 소재한 ㈜아로마팩토리 희로는 대왕암 솔잎 추출물을 활용한 아로마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기업이다. 특허 출원한 솔 비누를 포함한 캠핑키트를 제작해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베트남·태국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준비 중이며 지역민들에게 무상으로 아로마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간절곶배꽃마을은 울주군 서생 간절곶배를 활용한 인절미, 주악, 누미이화병, 조청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생배 재배 농가와 계약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수익의 10%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에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동구 화정동에 위치한 산마루자연체험협동조합은 친환경 농산물 수확 체험과 도자기 체험을 제공하는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무료체험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그린나래는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기업으로 농촌체험장과 마을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해 농가 수익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수익금의 10%를 마을경로잔치에 사용하는 등 지역 내 상생을 도모하는 기업이다.

북구 매곡동에 위치한 씨앤트리(주)는 공예·목공·도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로 구성된 마을기업으로 목공예, 도자기, 직물공예, 손글씨, 수채화를 배울 수 있는 체험예술

카페를 운영 중이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 있다.

울주군 청량읍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기업인 까페꿈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육아와 일자리를 병행할 수 있게 공동으로 수제청, 음료, 도시락을 판매하는 카페다. 6년차 마을기업으로 접어듦에 따라 마을 벼룩시장(플리마켓, flea market)과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능력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발굴하여 고용하는 등 마을 공동체를 확대를 꿈꾸고 있다.

마을기업은 연 2회 시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내년 마을기업 공모는 10월 중 예정되어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회차(신규) 5,000만 원, 2회차(재지정) 3,000만 원, 3회차(고도화)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 입문교육 7시간을 사전 이수해야 하며,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는 오는 9월 8일 마을기업 아카데미를 개설해 입문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8월 31일까지 (재)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 특색을 살린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지난 2010년 5개사에서 현재 62개사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또한 10년 동안 우수마을기업 9개사가 지정되고 지난해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마을기업인 모두애(愛)마을기업에 1개사(㈜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지정되는 등 내실 있는 마을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기현/기자

전라북도, 범도민 소비촉진 특별기간 운영

전라북도가 전 도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불씨로 삼아 골목골목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88일간을 "범도민 소비촉진 운동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촉진 운동은 7월 5일부터 신청·지급되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1단계) 소비증가 효과가 여름휴가철(2단계), 추석명절(3단계)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계기별 이벤트를 전개한다.

특히,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를 위해 홍보 메시지를 '전북경제, 기지개를 펴자!'로 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분좋은 추가소비와 지역상품 애용뿐만 아니라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와 제때 백신접종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1단계, 7월)에는 전북경제 살리는 「슬기로운 재난지원금 사용법」 실천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북경제 살리는 「슬기로운 재난지원금 사용법」은 ① 신속한 사용, ② 골목상권 애용, ③ 추가 소비 등 세 가지로, 재난지원금의 경제유발 효과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캠페인에 앞장서기 위하여 전북도는 소속 공직자가 참여하는 '재난지원금 골목상권 사용하기 주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여름휴가철(2단계, 8월)에는 도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촉진을 위해 「여름휴가 도내(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비대면 안심 관광지를 포함한 '도내 여름휴가 추천명소'와 함께 투어패스 할인 등 백신접종자 관광분야 인센티브 정보를 종합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객들이 알차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피서지 인근 바가지요금 단속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추석명절(3단계, 9월)에는 추석명절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취약부문(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집중 소비촉진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9월중 전통시장 장보는 날 운영, 기념품 배부, 장보기 도우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함께 추석명절 선물 지역상품 보내기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종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살아나는 소비 불씨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범도민 소비실천 특별기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경기 섬유기업 20개사, 'GTC 글로벌 랜선 상담위크'로 코로나19 돌파

경기도내 섬유기업 20개사가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의 온라인 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총 817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12일간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글로벌 랜선 상담위크'를 열어 이 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는 경기도가 지난 2011년 도내 중소 섬유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돕고자 설립한 지원센터다.

도내 GTC(양주)를 중심으로 해외 3개 지사(미국 LA·뉴욕, 중국 상하이)와 3개 거점(브라질 상파울루, 베트남 호치민, 중국 광저우)을 운영하며, 섬유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글로벌 랜선 상담위크'는 코로나19로 해외 마케팅이 어려운 도내 섬유기업을 위해 국내 GTC와 해외 지사 간 온라인 채널을 활용, 해외바이어와 도내 섬유기업 간 비대면 1:1 화상상담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참여 기업 20개사는 최근 트랜드를 반영한 총 920개 섬유원단 제품을 소개하며 현지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비대면 1:1 화상상담의 애로사항 최소화를 위해 미국의 LA와 뉴욕, 중국의 상해와 충칭 지역의 현지 바이어 26명과 도내 섬유기업 20개사를 사전 신청을 통해 매칭을 완료했다.

아울러 참가기업의 섬유원단 샘플 및 자료를 해외GTC를 통해 현지 바이어에 미리 제공하고 방문 상담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화상상담과 수출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다.

상담위크에 참가한 천연소재 니트원단 생산기업 '텍스라마(대표 임원범)'는 "코로나19로 해외 바이어와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지역의 다양한 바이어와 만나 신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 좋았다"며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온라인 상담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경기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섬유기업 수출 상담회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개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면 마케팅에 준하는 성과와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보다 많은 바이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도 글로벌 랜선 상담위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특화산업팀(031-850-2632)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최정근/기자

인천시, 청년센터 구축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

서구, 강화군 지역 청년들 미래 위한 준비 공간 기대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거점별 청년센터 (유유기지) 추가 구축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서구 청년 청년센터 구축 10억 원, 강화군 청년센터 구축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7년 10월 유유기지 인천(미추홀구)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유유기지 부평 개소, 금년 11월에는 동구 청년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서구와 강화군 청년센터 추가 확충으로 거점별 청년센터가 5곳이 구축 확정됐으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인천시 전역에 청년센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에게 취·창업활동과 소통·교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활동 복합공간이며, 교육, 문화, 예술과 취·창업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정책의 홍보 지원 등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구축 될 청년센터가 서구, 강화군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다양한 준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소통 및 지원 거점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라디오스타' 홍윤화X이은형, 웃음 타율 100% 장르 불문 '얼굴 루팡'들!

홍윤화, 이은형, 하연수, '이달의 소녀' 츄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배꼽 사냥꾼으로 변신했다. 하연수는 꼬부기를 닮은 '신비로운 얼굴' 능력자 면모, 노 필터 입담을 장착한 예능감, 4MC를 감동하게 한 금손 인증까지 '1+1+1' 매력 부자임을 인증했다.

믿고 보는 개그우먼 홍윤화와 이은형은 모든 생명체를 완벽하게 복사하는 웃음 타율 100% '얼굴 루팡' 개인기와 거침없는 절친 폭로전으로 빅 웃음을 선사했다. 특히 이은형이 얼굴 자체가 '인천국제공항'인 얼굴 대도 면모를 자랑한 장면은 시청률 7%를 기록하며 '최고의 1분'에 등극했다.

지난 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 / 연출 강성아)는 홍윤화, 이은형, 하연수, '이달의 소녀' 츄가 출연한 '신비한 얼굴 사전' 특집으로 꾸며졌다.

8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라디오스타'는 시청률 4.7%(수도권 기준)를 기록했다.

'최고의 1분'은 전 세계인의 얼굴을 가져 '인천국제공항'과도 같다는 이은형이 국적 불문 닮은 꼴을 소환하는 장면으로 최고 시청률 7%까지 오르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홍윤화와 이은형은 '얼굴 루팡' 개인기를 콸콸콸 쏟아내며 믿고 보는 개그우먼 다운 매력을 자랑했다. 먼저 홍윤화는 요리연구가 이혜정, 배우 이정은 그리고 함께 출연한 츄의 '치명 애교'까지 'Ctrl+c, Ctrl+v' 완벽 복사해 역시 '브라자(브라보 라스가 낳은 자식들)' 다운 활약을 펼쳤다.

또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물론 먹성까지 닮은 '도플갱어'와 마주친 비화도 공개했다. 고깃집에서 은둔의 고수 같은 손님이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손님의 정체는 자신과 닮은꼴로 언급되던 배우 고창석이었다고. 이외에도 홍윤화는 지인의 결혼식에서 고창석과 춤을 췄던 운명적인(?) 만남을 언급해 시선을 모았다.

얼굴에 전 세계인의 모습이 있어 흡사 '인천국제공항'과 같다는 이은형은 얼굴 대도 개인기 퍼레이드로 만점 활약을 했다. '펜트하우스'의 주석경부터 애니메이션 캐릭터까지 장르 불문 생명체를 완벽 복사해 시선을 모았다.

또한 이은형은 남편 강재준과의 러브스토리 비화도 공개했다. 철벽남인 강재준과 만취 키스 후 연애를 시작, "홍윤화가 우리 커플을 맺어줬다"고 고백했다. 특히 홍윤화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강재준에게 "오늘부터 1일인가요?"라는 문자를 대신 보냈다며 '사랑의 오작교'로 활약한 홍윤화의 센스甲 연애 코치 비화를 덧붙였다.

이은형은 배우 이제훈 닮은꼴 외모였던 강재준의 훈훈한 외모에 반했다고 주장, MC들의 동공지진을 불렀다. 이어 강재준과 이제훈이 함께 찍은 도플갱어(?)아닌 도플갱어 투샷이 공개돼 폭소를 자아냈다. 이외에도 홍윤화와 이은형은 함께 자취했던 시절 서로 바지와 속옷을 빨래할 때 애를 먹은 비화를 공개하며 '절친 폭로전'을 벌이기도.

캐릭터 꼬부기를 닮은 신비로운 얼굴의 능력자 하연수는 동안 외모가 고민이지만, 이점도 있다며 "시트콤 '감자별 2013QR3'에서 상대배우인 여진구와 키스신도 있어 미안했다. 그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 보인다고 해 다행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또 하연수는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노 필터 입담'과 얼굴로 그 시절 미니홈피 감성을 소환하는 신비로운 비주얼, 금손 매력까지 '1+1+1' 매력을 자랑했다. 하연수는 "친구를 칭찬할 때 '잘한다'가 아니라 '지혜롭다'라고 말한다. 내가 봐도 선비 같은 면모가 있다. 줄임말도 안 쓰려고 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데뷔 전 후 짠내 스토리도 들려줬다. 하연수는 "신인인데 주연을 맡아 악성 댓글이 많았다. 하지만 촬영장에서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바빴다"며 거침없이 털어놨다. 또 고깃집, 편의점, 쇼핑몰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고 쇼핑몰 사무실에서 숙식도 했던 비화를 소환하고, '내 집 장만' 꿈을 이룬 자수성가 스토리를 고했다. MC들의 모습을 담은 고퀄리티 초상화를 직접 그려와 클래스 다른 금손을 자랑했다.

'이달의 소녀' 츄는 '애교 철벽' 김구라까지 무장 해제시켰다. '깨물 하트' 포즈의 창시자인 츄는 "하트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악몽을 꾸기도 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라디오스타' 한정 왕하트를 선보여 시선을 강탈했다.

또 다양한 포즈와 생기 넘치는 표정 때문에 신흥 짤부자로 꼽히는 츄는 가장 좋아하는 짤을 묻자 "'놀면 뭐하니?'에서 선물이라고 한 장면"이라고 꼽아 시선을 모았다.

방송 말미에는 양재진, 송은이, 김수용, 김상혁이 출연하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특집이 예고됐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 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전순희/기자

'놀면 뭐하니?' MSG워너비 완전체 데뷔 첫 공식 활동!

'놀면 뭐하니?' MSG워너비가 데뷔 후 첫 공식 활동으로 바로 오늘(8일)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 MBC 표준FM '원더풀 라디오 이석훈입니다'에 출격한다. 지난 3일 '쇼! 음악중심' 데뷔 무대 후 MSG워너비 8명 전원이 함께하는 첫 공식 스케줄 소식인 만큼 벌써부터 '소금이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MBC '놀면 뭐하니?'(연출 김태호 윤혜진 김윤집 왕종석 작가 최혜정) 측은 지난 7일 공식 SNS을 통해 MSG워너비의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 MBC 표준FM '원더풀 라디오 이석훈입니다' 출연 소식을 전했다.

2021년 여름 음원 차트 정상에서 '유야호~'를 외치고 있는 남성 보컬 그룹 MSG워너비가 '쇼! 음악 중심'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공개된 첫 공식 스케줄이기에 더욱 관심이 뜨겁다.

MSG워너비 M.O.M(별루-지, 강창모, 원슈타인, 박재정)의 '바라만 본다'(작곡 박근태 김도훈 강지원, 작사 강은경), 정상동기(김정수, 정기석, 이동휘, 이상이)의 '나를 아는 사람'(작곡 나얼, 작사 영준)은 국내를 비롯해 해외 리스너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먼저 레전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손꼽히는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는 MSG워너비 멤버 모두가 첫 출연인 셈. 가요계 대 선배이자 레전드 DJ 배철수와 갓 데뷔한 신인 MSG워너비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를 모은다.

이어 MBC 표준FM '원더풀 라디오 이석훈입니다'에서는 MSG워너비 결성을 위한 오디션에 '차승원'으로 참여했던 SG워너비 이석훈과 MSG워너비 멤버들의 만남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방송에서 예고된 '톱텐귀 콘서트'에서도 자신들의 롤 모델인 SG워너비와 함께 했던 MSG워너비 멤버들. 이번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비하인드를 풀어줄지 이목을 집중된다.

오늘(8일) MSG워너비가 출연하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오후 6시), '원더풀 라디오 이석훈입니다'(오후 8시)는 모두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봉춘라디오'와 'imbc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생생한 현장을 함께 할 수 있다.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라디오는 물론 다양한 곳에서 MSG워너비 섭외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을 통한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MSG워너비 M.O.M과 정상동기의 활동은 계속될 예정이니 함께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놀면 뭐하니?'는 고정 출연자 유재석이 릴레이와 확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유(YOO)니버스'를 구축하며 '부캐' 신드롬을 일으켰다. 코로나 시대에 잃기 쉬운 웃음과 따스한 위로를 동시에 전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최재은/기자

영화 '오필리아' 한 폭의 그림같은 명화 포스터 공개!

셰익스피어 '햄릿'을 재해석한 영화 '오필리아'가 한 폭의 그림 같은 미장센으로 시선을 휘어잡는 명화 포스터를 공개했다.

7월 14일 개봉을 앞둔 '오필리아'가 존 에버렛 밀레이 '오필리아'를 오마주한 명화 포스터를 공개했다.

'오필리아'는 타고난 현명함으로 왕비의 총애를 받아 왕실의 시녀가 된 오필리아가 햄릿 왕자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면서 왕국을 둘러싼 음모에 맞서는 로맨스 시대극으로 끊임없이 리메이크 되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불후의 명작 [햄릿]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햄릿이 아닌 비운의 조연이었던 오필리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다.

공개된 '오필리아' 명화 포스터는 마치 존 에버렛 밀레이의 작품을 보는 듯한 감상을 불러온다. 명화 포스터는 오필리아가 극중 꽃말을 이용해 속마음을 내비치는 장면에서 등장했던 로즈마리, 팬지꽃, 데이지 등의 꽃으로 장식하여 의미를 더한다.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필리아'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작품으로, 자연을 사랑해 이를 그림에 담고자 했던 라파엘 전파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 수작으로 꼽히고 있다.

원작에서는 오필리아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유명하지만, 명화 포스터에는 "그대도 언젠가는 당신만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라는 희망에 부푼 영화 속 대사가 더해져 영화 '오필리아'에서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줄지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스타워즈' 시리즈로 스타덤에 오른 데이지 리들리를 비롯하여, 유수 영화제를 휩쓸었던 '1917'의 주인공 조지 맥케이가 '오필리아'의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은다. 두 사람은 각각 오필리아와 햄릿 역을 맡아 운명적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 예비 관객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대세 신예들과 더불어 베테랑 연기파 배우들도 조연진으로 합세했다. '21 그램', '임파서블'로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후보에 두 번이나 오른 나오미 왓츠, 영화 '클로저'로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 아카데미 시상식은 물론 전 세계 유수 영화제의 후보로 오른 클라이브 오웬, '해리포터' 시리즈의 '말포이'로 유명한 톰 펠튼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하여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며 7월 가장 기대되는 셰익스피어 유니버스의 등장을 예고한다.

최광수/기자

한소희, 독보적 아우라 '알고있지만' 광고서 다채로운 매력 발산!

화제성을 몰고 있는 배우 한소희가 광고계에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알고있지만' 속 유나비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0대 여배우 중에서도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소희는 최근 헤어 제품부터 가방과 주얼리, 과자 등 모델로 연이어 발탁되며 광고계를 섭렵하고 있다.

그는 때론 고혹적이고 우아한 매력을 뽐내는가 하면 또 다른 광고에서는 청순하면서도 통통 튀는 발랄함을 한껏 발산하며 20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현재 방영 중인 JTBC 토요스페셜 '알고있지만'(연출 김가람, 극본 정원, 제작 비욘드제이·스튜디오N·JTBC스튜디오/원작 네이버웹툰 〈알고있지만〉(작가 정서)) 속 청순가련한 유나비와는 색다른 매력의 광고 콘셉트가 연이어 공개되면서 한소희의 다채로운 매력을 엿보는 재미가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매력을 갖고 있는 한소희는 작품과 광고 등 다방면 활동을 통해 폭발적인 화제성을 이끌어내며 대체불가 한 배우임을 입증했다.

한편 한소희가 출연하는 '알고있지만'은 사랑은 못 믿어도 연애는 하고 싶은 여자 유나비와 연애는 성가셔도 썸은 타고 싶은 남자 박재언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로, 매주 토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현유주/기자

'술꾼도시여자들', 이선빈-한선화-정은지-최시원 캐스팅

퇴근 후 술 한잔이 인생의 신념인 30살 여자들의 삶을 빌려 단짠인 우리네 일상 위로한다!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이 주연으로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 최시원을 캐스팅하고 본격 제작에 나선다.

'술꾼도시여자들'은 퇴근 후 술 한잔이 인생의 신념인 세 여자의 '술 펀질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 마음이 갈팡질팡 하는 갓 30살 여자들의 삶을 빌려 지친 몸과 마음을 녹여줄 위로를 전하는 드라마로 미깡 작가의 '술꾼도시처녀들'을 원작으로 한다.

이선빈은 방송 작가 안소희를 연기한다. 이미 여러 번 검증 받은 '이선빈표 러블리함'을 꼭 필요로 하는 캐릭터라고 예고해 기대가 쏠린다.

요가 강사 한지연을 맡은 한선화는 하이톤을 자랑하는 인물로 그녀가 가진 통통 튀는 매력과 꼭 어울려 시너지를 낸다.

정은지는 종이접기 유튜버 강지구로 변신한다. 오로지 한 곳에만 집중하는 성격으로, 정은지는 강지구의 복잡한 심경을 설득력 있는 연기력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예능 PD 강북구 역을 맡은 최시원은 세 여주인공과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갈 청일점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최시원이 지닌 유쾌한 매력이 드라마와 꼭 맞는 궁합을 자랑한다.

이처럼 '술꾼도시여자들'은 또래 배우들이 모여 제 나이의 캐릭터를 연기해 설득력을 높인다. 각기 다른 매력으로 이미 인정받은 배우들이 총출동한 만큼 이들이 만들어 낼 시너지도 관전 포인트다.

'술꾼도시여자들' 제작진은 "보편적인 이야기와 공감 되는 설정으로 위로와 재미를 드리겠다. 캐릭터의 매력과 꼭 맞는 배우를 캐스팅했으니 설득력 있고 몰입감 높은 드라마를 선보일 것"이라고 약속하며 기대를 높였다.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은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태연 '위켄드', 음원차트 싹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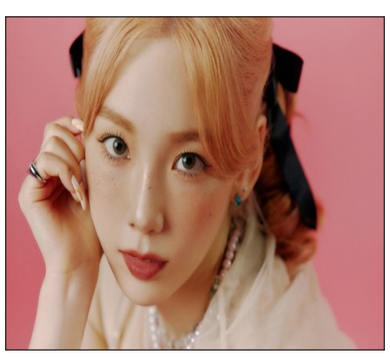
그룹 '소녀시대' 태연의 신곡 '위켄드'가 음원차트를 휩쓰고 있다.

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위켄드'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지니, 벅스, 바이브 1위를 포함해 각종 음원 차트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싱글은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도 전 세계 14개 지역 1위에 올랐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페루,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홍콩,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룩셈부르크 등에서 정상에 올랐다.

또 중국 QQ뮤직의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도 1위를 차지했다.

한편, 태연은 국내 음악방송 활동도 한다. 오는 8일 엠넷 '엠카운트다운', 9일 KBS 2TV '뮤직뱅크', 10일 MBC TV '쇼! 음악중심', 11일 SBS TV '인기가요' 등에 출연해 '위켄드' 무대를 선보인다.

최재은/기자